metro®
메트로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제3227호 www.metroseoul.co.kr

News p/2

가뭄 극심… 배춧값 급등

Entertainment p/17

'착하지 않은 여자들' 도지원

사면조사?

10년 전 삼성 X-파일 이건희 회장 서면조사 후 무혐의 법무장관 황교안, 이번엔 성완종게이트에 다시 적용?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검찰이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그간 검찰의 서면조사는 정·재계 실세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데다 불기소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면조사의 상징적 케이스로 통하는 '삼성X파일'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교안식 봐주기 수사'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지난달 29일 관련 정치인에 발송해 이날 배송이 완료됐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질의서가 발송됐다.

검찰은 서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마무리) 단계가 아닌 수사법기법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조계는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법조인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서면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노영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는 "서면조사는 준비된 답안지와 같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진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도 "서면질의서가 상대에게 방어기회를 주는 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돌파를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물급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가 불기소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기 직전 수순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서면조사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05년 '삼성X파일' 사건수사다. 도청 녹취록으로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삼성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사건을 지휘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혐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학수, 홍석현씨 등 삼성 관계자와 '떡값검사' 등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핵심 인물이던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를 보도한 MBC와 월간조선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기소했다.

검은 돈을 주고 받은 거물들은 모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를 보도한 언론인만 처벌한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도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가 사실상 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트 6인에 대한 서면조사가 황교안식 봐주기 수사의 조짐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이 현 정권의 실세인 점도 무관치 않다.

검찰이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대부분의 사건은 정·재계 거물실세가 연관된 경우였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수사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와 2011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발당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매입 의혹 당시 아들 이시형씨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5선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는 "리스트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합리적 의혹은 있지만 구체화돼 있지 않아 서면조사라는 하나의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면서도 "여권 유력 실세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 검찰이 우회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서면질의와 함께 주변 정황 조사와 추후 소환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전국 가뭄 극심… 봄배추값 급등 파동 우려

5월 말 강수량 1~6㎜ 불과 해갈 위해선 10~30㎜ 필요

극심한 봄 가뭄으로 올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가뭄 영향으로 봄 배추 등 농산물의 산지 거래가격은 평년보다 2~3배 가량 치솟기 시작했다. 엘니뇨 현상으로 국제곡물가격도 치솟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강수량은 1㎜에서 6㎜에 그쳤다. 경남 창원은 6.0㎜, 경북 봉화는 1.0㎜, 충북 제천은 1.0㎜, 충남 서산은 2.8㎜, 전북 전주는 4.0㎜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봄 가뭄 해갈을 위해서는 10mm에서 30mm 정도의 강수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전망이다.

◆ 2010년보다 심한 배추파동 오나

봄 가뭄으로 가장 먼저 오르기 시작한 것은 봄 배추 가격. 봄 배추의 경우 통상적인 산지 거래 가격이 평당 4000원 선인데 현재 평당 8000원까지 오른 상태다.

배추 소매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문제는 여름이다. 봄 가뭄이 지속되면 여름배추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랭지 배추 산지인 강원도의 경우 소양강댐이 사상 최악의 수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소양강댐(만수위 193.5m) 수위는 크게 떨어져 지난 달 말 기준으로 157.25m의 수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74년 댐 건설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여름배추는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배추모종을 밭에 옮겨 심어야 한다. 봄 가뭄이 지속되면 여름배추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0년 배추 대란보다 더 심각한 배추가격 파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농민들이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밭에 물을 대기 위한 급수설비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면서 경영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 슈퍼 엘니뇨, 국제곡물가격에 타격 입히나

현재 가뭄은 신선식품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가뭄이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남부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미국에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출몰하는 등 북반구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 APEC 기후센터는 우선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예년보다 고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콩 등 곡물류의 국내 가격은 변동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생산한 곡물 재고량과 수입량 등이 충분하기 때문. 하지만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이 지속될 경우 곡물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봄 가뭄이 지속되면 콩·쌀 등의 곡물류 재배까지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국내 농산물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영양=홍경환객원기자

중국·홍콩서 한국인 10명 격리

메르스 한인 환자와 접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중국과 홍콩에서 격리된 한국인이 10명으로 늘어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서 한국인 5명이, 홍콩에서 한국인 5명이 중국 출장 중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남성과 밀접 접촉한 이유로 당국에 의해 격리 조치됐다. 현지인을 포함해 광둥성에서는 모두 64명이, 홍콩에서는 모두 18명이 격리됐다. 격리자 중에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광둥성 보건당국이 아직 한국인 남성과 접촉했던 13명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3명 가운데 11명은 한국인 남성이 탔던 버스에 함께 탔던 승객들이다.

홍콩 당국도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50명 외에 OZ723편 승객과 버스 승객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고 있어 격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광둥성에서 치료 중인 한국인 남성은 증세가 다시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대처를 위해 위생 전문가들을 후이저우로 추가 파견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탄저균 배송사고' 호주도 발칵

2008년 발생, 경위 조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가 2008년 호주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호주도 발칵 뒤집혔다.

30일(현지시간) 호주 현지언론에 따르면 닉 크세노폰 연방상원의원은 미국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호주로 배송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크세노폰 상원의원은 "나는 이(탄저균)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모든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러한 사고가 어떤식으로든 감춰진다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 감춰져 왔겠냐"고 반문했다.

다만 호주정부의 태도는 달랐다. 줄리 비숍 외교장관은 "2008년 발생한 (탄저균 배송) 사고는 두나라 간의 관계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군이 공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조사에 참여하는 중이며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국 내 연구소와 동맹국인 한국과 호주로 보내 파문을 부른 미 유타주 소재 더그웨이 미군 실험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2008년 호주의 한 실험시설로도 보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곳은 미국 11개 주와 한국, 호주 등을 포함해 24개 실험시설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표본이 정확히 언제 발송됐고, 어디로 보내졌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윤아기자 yoona1@

탄저균 계기 SOFA 개정 움직임

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를 계기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긴급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예정된 SOFA 합동위 회의 때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긴급협의 결과에 대해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모든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철저히 관리와 통제할 수 있게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며 "SOFA 운영방법과 절차상 문제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예정인 SOFA 합동위 회의 때 관련 사항을 의제로 (미국 측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송 사건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탄저균이 오산기지에 배달되는 사태는 의미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도 최근 탄저균 배송사건과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차후 대책이 아니라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도쿄역 보관함서 부패한 할머니 시신 발견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기차역의 한 개인 물품 보관함에서 부패한 할머니의 시신이 든 가방이 발견됐다. 도쿄 시경에 따르면 역의 보관함에 한 달께 방치돼 있던 가방에서 키 140cm가량 되는 할머니 시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 직원이 이날 신고했다. 사진은 이날 해당 가방이 발견된 보관함 주변에 도쿄 시경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몰려있는 모습. /연합뉴스

감염법 구멍… 국회, 13년간 정부 탓만

사스·신종플루 사태 후 다양한 법안 마련했지만

신고 관련조항은 없고 안일한 대응 비판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두고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부터 감염병 관련법의 구멍을 13년 간이나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를 걷던 시점이었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 신고의무자의 범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소의 범위, 신고의 방법·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제12조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등에게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미 12년 전인 2002년 중국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면서 전염병예방법(감염법예방관리법 이전 법률)을 개정했다. 2003년 8월의 일이다. 국회는 이때 비로소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 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의 규정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신고와 관련된 조항은 구멍난 상태였다.

이후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조류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전염병이 돌면서 13년 동안 법안 개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회는 신고 관련 조항의 구멍을 메우지 않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및 탄저균 대책 긴급 당정협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문 장관은 메르스사태로 최근 연달아 국회에 출석해 여야로부터 집중타를 맞았다. /연합뉴스

올해 메르스 사태를 맞고서야 부랴부랴 구멍 메우기에 나섰다. 법안의 심사기간을 생각하면 실제 법안의 효력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만이 거셀 뿐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비판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역시 지난 달 28일 방송에 나와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재의 방법은 아주 수동적"이라며 "초기 1차 감염 당시 감염자를 잘 판단해서 완전 격리했으면 2차 감염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방심하고 몰랐기 때문에 2차 감염자가 추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국회법 거부권 눈앞… 행정·입법 정면충돌

박 대통령 "정부 무력화"
국회 사무처 "입법권 보장"
野 "입법부와의 전쟁선포"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라며 반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도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회 간 충돌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회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록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당청 갈등을 의식한 조심스런 발언이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며 "우리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는 톤이 달랐다. 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송병형기자 bhsong@

"채동욱·윤석열 다 부르자"

황교안 청문회, 정권 중간평가 될 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 등을 부르자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황 후보자 청문회장이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장이 될 전망이다.

1일 황 후보자 청문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검사가 (증인으로) 가장 중요하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관련자들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채 전 총장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항명 파동으로 인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밀고 나갔던 채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 전 대표는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박근혜정부와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 여당간사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황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필요하다면 받아주지만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사안을 정치공세로 악용하려고 부르는 거라면 받아줄 수 없다"며 증인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윤정원기자 garden@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명식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法, 정윤회 통화내역 압수수색 결정

세월호 참사 당일 수신기록

법원이 현 정권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세월호 참사 당시 수신 통화기록을 압수수색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일 열린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에 "(변호인이) 서면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을 내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수신 통화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측도 서면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 측 신청으로 지난 3월 30일 SK텔레콤에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의 수신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발송했다. 정씨의 통화내역 중 발신 내역과 위치추적 내역은 이미 이 사건 증거로 제출돼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씨의 수신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제출명령'으로 바꿔 정씨의 통화기록을 다시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은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요청에 대해선 협조 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날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정씨 통화기록은) 검찰이 애당초 수사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검찰의 협조를 얻어 SK텔레콤이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재판부의 입장에 따르기로 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이와 함께 헌법과 미디어법을 전공한 타지마 야스히코 상지대 교수와 USA투데이, 시카고트리뷴 서울 특파원으로 일해온 도날드 커크 프리랜서 기자를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한국의 언론 환경을 입증, 검찰의 기소가 언론 탄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보식(55)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취재원과 취재 경로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홍원기자 hong@

'자원외교 비리' 강영원 소환

<前 석유공사 사장>

檢 "강 전 사장 재소환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일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강 전 사장을 한차례 더 소환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강 전 사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한 이명박(MB)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적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지불한 금액 전체를 배임 액수로 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의 자원개발 회사인 하베스트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인수해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 비리'의혹과 관련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의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표적 비리 의혹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NARL의 사업 가치나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 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246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수 후 매년 1000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작년 8월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야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 전 사장의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인수 실무자들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조사해 왔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체온 측정 받는 중동발 입국객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1일 오후 중동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 외국인이 발열 감시 적외선 카메라에 열이 감지되자 정밀 체온측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10대 소녀 성희롱범 무죄"

10대 소녀를 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경찰에서 한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법원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법리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7월 윤씨는 집에 가던 중학생 A양을 발견하고 집 앞까지 따라갔다.

윤씨는 A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며 "너희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다. 당시 윤씨는 2013년 5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가 집행유예 기간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1심에서는 A양에게 수차례 증인 출석을 부탁했지만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진술을 위해 구인절차까지 거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구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날 김보람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법정 증언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법원이 법조문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홍원기자

法 "면접 합격 후 교육평가 '불성실'… 해고 정당"

법원이 면접 후 회사에 5일 동안 출근했는데도 최종평가가 남았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사에 5일 동안 출근했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김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사는 면접 후 실시되는 평가에서 합격해야 최종 합격한다고 지원자들에게 고지했다"며 "김씨는 중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최종평가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5일 동안 A사에 출근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지원자 평가를 위한 것"이라며 "김씨가 이 기간 동안 티오피(TOP)급여라는 명목으로 받은 30만원은 임금이 아니라 교육기간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B사의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김씨는 이후 B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달 17~21일까지 A사에 출근했다.

B사는 김씨 등 7명의 지원자들에게 "급여통장 사본, 증명사진 등 입사서류를 준비하라"고 알렸다. 또 지원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A사로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A사에서 5일 동안 교육을 받은 김씨는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B사를 통해 불합격을 통보받았다.

김씨는 A사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체결됐고 불합격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불합격 통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홍원기자 hong@

3차 감염시 속수무책… 군·경 동원해야

메르스 사태

치료·격리·수용시설·감염전문의 태부족

1일 현재 메르스 격리자는 682명으로 급증했다. 18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지금 메르스 격리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메르스 3차감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초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후 유사한 증세를 앓아온 환자가 숨졌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지방병원에 입원중이던 한 환자가 1일 숨져 사인이 메르스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사망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의료진이 '격리대상'이 된 이후에도 수일간 환자를 돌본 것으로 알려져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정부 발표대로 대부분의 감염자가 첫 확진환자로부터 전파된 2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3차 감염자가 나오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최초 감염자와 2차 감염자의 동선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초 대응이 적절하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감염자의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메르스의 확진 판명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최초 감염자에 대한 검사 요청을 미루는 사이 초기에 황금 같은 이틀이 지나버렸고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을 통해 개미한마리도 지나가지 못하게 감염자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앞서 확인된 대로 메르스 격리자는 이틀전 129명에서 무려 5배인 682명으로 늘었다.

격리대상자가 급증하자 신종감염병대응TF팀 위원장인 유재갑 한림대의대 교수는 3차 감염에 대한 가능성과 대책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중전파 가능성은 없지만 초기에 격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만약 3차감염자가 나온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전국의 감염전문의는 200여명에 불과하다. 거기에 치료와 격리시설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감염자에 대한 격리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이렇게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스이후 다시 메르스 바이러스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투자부족과 감염내과 지원학생의 감소 그리고 경제적 채산성이 떨어져 병원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현실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계속해서 "3차 감염자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우선 격리시설과 치료공간 확보를 해야하고 노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되기에 군인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메르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일단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호흡곤란, 신장 기능 손상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사율 40%에 육박하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등으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 위한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메르스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기구 구성을 촉구 하고 있다. /뉴시스

일선 구급대원들에게 지급된 보호복 세트 일 오후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종감염병 대응 보호복 착용법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차로 23개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에 6,900개의 보호복 세트를 지급했다. /연합뉴스

서울 지방변호사회, 15년간 소외계층 후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80억원을 후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그간 9000여명의 변호사가 후원에 참여해 1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서울변호사회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사업을 시작으로 수용자·저소득층 자녀,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 자녀로 대상을 확대해 후원사업을 이어왔다.

또 2000년부터 매년 5월, 12월에 양로시설과 아동·청소년 양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서울변호사회 측은 "회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경찰 "성소수자 축제 거리행진 금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반발

이달 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 거리행진을 경찰이 금지하기로 해 주최 측이 반발에 나섰다.

1일 퀴어(Queer)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 행사 중 거리행진을 금지한다고 최근 조직위에 통고했다.

경찰은 조직위가 신고한 행진로 일부에 대해 다른 단체가 행진을 미리 신고했기 때문에 서로 방해가 예상되고, 행진로가 주요 도로에 해당해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금지 통고 사유를 밝혔다.

주최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날 조직위는 "15년간 진행된 퀴어 문화축제 퀴어 퍼레이드는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을 준 사실이 없다"며 "또 주요 도로로 명기된 청계로에서 과거 6년간 퍼레이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가 행진로 사용을 먼저 신고한 데 대해서 조직위는 "보수 기독교 세력이 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고자 서울시내 주요 장소에 동시다발로 집회신고를 하는 등 퍼레이드 개최 예정 장소를 선점하려고 움직여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0년부터 시작된 퀴어문화축제는 매년 신촌에서 열리다 올해 처음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현재 일부 기독교 단체는 서울시가 조직위 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비난하며 연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촌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당시 참가자들과 기독교 측이 대치하면서 4시간 이상 신촌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며 "주최 측이 행진 신고를 다시 낸다면 경로를 살펴보고 나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1년 미만 근로 중도 퇴직자 연차휴가 보장 안해도 합당"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중도 퇴직 경우, 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모씨가 "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60조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일정 기간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60조 1항이 그 기준 근로 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 퇴직자의 퇴직 전 근로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근로 연도 직전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 60조 1항 또는 60조 2항 후단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충분히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홍원기자 hong@

저축銀 가계대출 '사상 최대'… 서민 부채 빨간불

3월말 현재 11조3093억 은행권 소외 계층 발길

시중은행보다 금리 높아 시장변화 대비 관리 절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09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2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의 2조3381억원에 비해 26.1%나 급증한 규모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까지 6조~7조원 수준을 보이다가 2011년 12월 10조원대를 뛰어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8조원대까지 떨어졌다 경기 부진으로 서민들의 생계형 자금수요가 늘면서 다시 증가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벌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 또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부 당한 고객들이 2금융권으로 발길을 향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주고객 층이 은행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가계가 주요 고객이라는 점이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은행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연 11.73%로 은행 가계대출 금리(연 2.96%)의 4배에 달한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결과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가운데 대부업 계열 등 20곳은 평균 30%의 고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법정 최고 이자율을 금융업권별로 차등화해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가계의 직접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며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대부업체 연 25%, 여신금융기관 연 20%로 낮춰야 한다"며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해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은행 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하는 은행이 현재 6개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합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입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을 선정할 때 적용하던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 구축, 자산총액 45조원 이상'이라는 입찰 참가자격을 없앴다.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재무신뢰성(20점), 대국민접근성·서비스(20점), 기금운용기여도·효율성(30점), 위탁수수료(30점) 등을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은행은 올해 9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 등 6개다.

여기에 광주·부산·경남·대구·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을 포함해 씨티·외환·스탠다드차타드(SC)·수협은행 등 10개 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행 등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에 나설 수 있게 기회를 주는 한편, 지방에 사는 국민이 청약통장을 만들려면 특정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신한은행, 美서 영업력 강화 나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베이(South Bay)에 토랜스 지점을 개점했다고 1일 밝혔다.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앞으로 토랜스 지점을 채널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아 지역 내 랜드마크 은행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경익 토랜스지점장(왼쪽부터 두번째), 손무일 법인장(왼쪽부터 세번째), John Lee 이사회의장(왼쪽부터 다섯번째)과 주요 내외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국내 주식형펀드, 나흘째 자금 순유입

국내 주식형펀드에 4거래일째 자금이 들어왔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에 1174억원이 순유입됐다.

설정액은 2294억원이었고, 해지(출금)액은 1174억원이었다.

펀드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형펀드에 하루 1000억원 이상이 순유입된 것은 2월 25일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는 646억원이 순유출됐다. 머니마켓펀드(MMF)에는 2752억원이 순유입됐다.

이에 따라 설정액과 순자산 총액은 각각 112조2428억원, 113조3223억원으로 증가했다.

/김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하나카드 "오션월드, 만원에 즐기세요"

하나카드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오션월드 만원의 써프라이즈' 이벤트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오는 6월 한달간 고객은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오션월드 입장권을 1회,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장 결제에 한해 혜택이 제공되며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동반 4인까지는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있다. 모바일카드로 결제한 선착순 1000명의 고객은 입장권 1만원 혜택과 워터파크 필수품인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또 7일과 14일, 21일 일요일에 하나 모바일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모비원(mobi 1) 비치볼'도 선물로 제공한다.

이밖에 하나카드는 성수기 워터파크 이용고객을 위한 우대 혜택도 마련했다. 10월 4일까지 오션월드 본인 포함 4인까지 30% 현장할인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아울러 6월 주중 비발디파크 리조트 객실도 특별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크나 파인, 메이플동 객실을 무기명회원 가격에 1만원 만 추가된 금액으로 최대 2박까지 예약 가능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은 하나카드 고객들에게 초여름 최고의 선물이 될만한 '오션월드 만원의 써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신청하고 24시간 후면 발급받을 수 있는 '하나 모바일카드 모비원(mobi 1)을 이용해, 기존에 하나카드가 없는 고객들까지 쉽고 편리하게 이번 써프라이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License News

자격증 전문교육 | 목민서원

제1회 '배관세척관리사'를 노려라!

노후배관 정밀진단과 세정을 통해 유지관리 필요!

노화된 배관들은 정밀한 진단과 세정을 통해 배관의 유지 관리 필요.

▶ 배관세척관리사란?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에는 인간의 혈관처럼 수도배관 및 난방배관등을 통해 물이 순환되고 있다. 이 물들은 배관의 상태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거나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배관 상태를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물이 지어진 후 약 2~3년이 지나면 수도관 내부에는 물때, 미생물, 유해 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쌓이고 녹이 발생하여 음용하거나 샤워, 설거지, 빨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은 이 오염된 배관 내부에서 발생하여 쉬어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잔류 염소가 함유되어 나오는 수돗물은 피부질환이나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며, 난방배관의 경우 관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부식된 퇴적물이 쌓여 난방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난방 효율을 떨어 뜨리고 가스비나 기름값이 더 많이 나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배관세척관리사가 절실히 필요로 한다.

▶배관세척관리사의 전망 및 응시자격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 개선사업 및 상수도 정비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국민의 3% 정도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뿐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수기를 구입하거나 생수구입 또는 수돗물을 끓여 먹는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옥내 수도배관의 노후화이다. 아파트나 공공건물, 많은 빌딩들의 노후된 배관들은 건축물의 준동연도 및 배관 재질 상태, 급수방식, 수압상태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기존 배관의 누수 여부나 취약 지점을 정밀한 진단과 세정을 통해 배관의 유지 관리를 해야하며,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배관세척관리사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간다. 민간자격증인 배관세척관리사는 아파트관리실, 빌딩 관리실,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며 소자본으로 배관청소업을 창업할 수도 있다. 배관세척 관리사는 학력, 성별, 경력, 나이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본자격증에 대한 더 많은 시험정보는 아래 교육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재경고시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관세척관리사 민간자격등록번호:제2012-0703호
발행기관:한국배관관리총연합회
자료제공:목민서원 206-93-9169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6길 9(도선동)

교육용 무료전화:080-800-8087

'주거복지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할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주거복지상담사란?

주거생활에서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제반문제들의 실태를 조사, 진단, 평가하고 주거복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회복지사와 같은 특히 주거복지문제를 상담하여 주거개선 등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복지상담사를 말한다. 주거복지상담사는 한국주거복지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주거복지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복지적 차원에서 정보수집, 제공, 상담, 지원을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을 조속히 양성하여 요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은 물론 양질의 전문인력 취업 발굴에도 이바지하려고 주거복지상담사 자격증 도입을 우선 민간자격으로 양성하려고 민간등록자격증 도입을 하였다.

▶주거복지상담사의 진출분야

주거복지상담사의 사회적 진출분야는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공공임대주택 관리기관, 민간임대주택 관리회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주거복지 관련 기관 등 다양하다.

▶주거복지상담사 시험

주거복지상담사 시험은 '주거복지상담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의하여 한국주거문화협회에서 시행하며 학력, 성별, 나이, 경력 등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진행되며, 총 5개 과목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인 자중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주거복지상담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시험정보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재경고시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번호:제2015-000929
시행 : 한국주거문화협회
자료제공:목민서원 206-93-9169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6길 9(도선동)

교육용 무료전화:080-800-8087

'농산물품질관리사'

건강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흐름의 확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 증가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관심.

▶ 농산물품질관리사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좋은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 '안전한 먹거리' 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효율적인 유통 질서 확립과 개선을 위한 생산자 ·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을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 같은 수요 증가로 농림부에서는 농산물 품질 관리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과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 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전망이 밝고 취업률이 높은 전문 자격증의 블루오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및 전망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판정,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브랜드 개발 및 포장 등 먹거리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로 농산물관련 단체와 가공 · 유통회사에 취업하거나 환경농산물 담당, 식품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조합,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브랜드 개발업체회사 등 폭넓은 취업이 가능하다.

WTO 가입 후 수입농산물의 국내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엄격히 해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농산물유통센터와 기업 및 농산물관련 분야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취업과 채용을 의무화하고있는 추세로 각광받는 유망 자격증이다.

▶ 응시자격 및 시험요강

농산물품질관리사는 학력, 성별, 경력, 나이 등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진행되며, 1차 시험은 총 4과목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인 자 중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은 실무 2과목으로 1차 시험 합격자 중 과목당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본자격에 대한 더 많은 시험정보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재경고시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제공:목민서원 206-93-9169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6길 9(도선동)

교육용 무료전화:080-800-8087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업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발굴, 육성 절실

▶ 수산물품질관리사란?

정부 국책사업으로 해양강국 정책에 따라 수산물의 브랜드화, 수산물의 안정화, 수산물의 품질관리, 유통 등을 수행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및 전망

최근 수산물의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고품질 · 안전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 및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산물 상품다양화 및 브랜드 개발, 수산물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하여 어가소득 및 수산업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발굴 ·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수산물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 촉진을 위한 농산물품질관리사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2015년 첫 회로 시행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산업관련 단체, 수산물 가공회사, 수산물 유통회사, 해양수산관련 행정기관 및 지자체 해양수산담당, 수산업식품 연구기관, 수산물 생산자 단체 · 조합, 수협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수산물 등급판정과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수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 기술에 관한 조언, 수산물의 선별 · 저장 및 포장시설 운용 · 관리, 수산물의 포장 및 브랜드 개발과 상품성 향상 지도, 수산물의 규격, 출하지도 등을 해당기관 및 업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 확보 및 상품화와 브랜드 개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발굴,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응시자격 및 시험요강

2015년 제1회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은 학력 · 성별 · 나이 등에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방식은 1차 객관식, 2차 서술 단답형으로 진행된다. 1차 시험은 총 4과목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40점 이상인 자 중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으로 한다. 2차 시험은 총 2과목으로 구성되며, 1차 시험 합격자 중 과목당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또한 수산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게는 만점에서 3%의 가산점도 부여될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수산물품질관리사' 에 대한 시험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재경고시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제공:목민서원 206-93-9169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6길 9(도선동)

교육용 무료전화:080-800-8087

미디어산업 최대 수혜… 'CJ E&M' 뜬다

올 전부문 실적 개선 기대
전년比 매출 9% 성장 전망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M'이 올해 방송과 영화, 게임 등 전 부문에서 실적 개선을 기록, 수익 개선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CJ E&M이 미디어산업 변화의 최대 수혜주"라며 "플랫폼 다각화로 선별적인 콘텐츠 소비가 가능해져 CJ E&M의 경쟁력 높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J E&M는 지난 1분기 깜짝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CJ E&M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293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9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904억원을 달성, 흑자전환했다.

특히 1분기가 광고시장 비수기임에도 방송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했다. 영화사업 매출액은 '국제시장'의 흥행과 '명량', '마담뺑덕' 등의 부가판권 확대로 32% 이상 늘었다. 뮤지컬 '킹키부츠'의 흥행 등으로 공연사업 매출액은 68% 이상 급증했다.

황승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송·영화·음악·공연 등 전 부문에서 영업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2분기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이민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송 부문에서 TV 광고 시장 정체에도 콘텐츠 경쟁력 증대로 VOD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시즌제 프로그램 편성 확대에 따른 안정적 콘텐츠 수급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영화 부문의 경우 지난해 2개의 해외 합작 영화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총 7~8개의 해외 합작 영화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열사인 넷마블게임즈는 국내 최단 기간 매출 1위 달성에 성공한 '레이븐'에 이어 최근 '마블퓨쳐파이트' 글로벌 출시에 성공했다"면서 "향후 '크로노블레이드', '이데아' 등 기대작을 잇달아 출시하며 지분법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CJ E&M의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9% 성장한 1조 3500억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559억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중국과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앞으로 현지법인은 제작, 배급, 유통에 걸친 전반적인 해외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민정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해외에서 모바일게임 '마블퓨쳐파이트'가 140개국에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으며 2분기 내 영화 '평안도'가 중국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안에 2~3개의 중국 방송 콘텐츠 제작 컨설팅과 공동제작 등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여행·카지노 株 울고 마스크·백신 株 웃고

| 마켓인사이트 |

메르스 공포에 증시 출렁

국내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주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위축된 소비심리가 여행과 항공, 카지노 등 관광산업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반해 백신 개발업체와 마스크 생산업체 주가는 급상승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 감염 우려자로 격리된 사람은 총 682명에 이른다.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백신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메르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관련 소품 기업이 수혜주였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백신과 마스크 등 관련주는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상한가 전체 종목 중 절반 이상을 이들 종목이 차지할 정도였다.

마스크 관련주 조아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14.98%(680원) 오른 5220원을 기록했다. 또 다른 업체 케이엠도 14.90%(870원) 상승한 6710원에 장을 마쳤다. 오공(14.84%)과 웰크론(4.33%) 등도 상승 마감했다. 백신주도 큰 폭으로 올랐다. 제일바이오는 14.97%(880원) 오른 6760원을 기록했고 파루(14.83%), 바이오니아(14.98%), 이-글 벳(14.99%) 등도 일제히 상한가를 쳤다.

코스피시장에서도 메르스 백신 관련주는 호황을 이어갔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전일대비 14.91%(1230원) 상승한 9480원을, 진원생명과학은 14.74%(2550원) 오른 1만9850원을 기록했다. 슈넬생명과학과 진양제약도 각각 14.90%씩 상승했다.

반면 여행, 항공, 카지노주는 된서리를 맞았다. 메르스 여파에 국내 여행객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날 증시에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1.22%, 0.3%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한때는 7~8%대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은 전일보다 4.58% 내린 3만9600원에 장을 마쳤고 롯데관광개발(-4.83%), 강원랜드(-1.49%), 호텔신라(-0.84%), 파라다이스(-0.81%)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국내 대표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각각 4.93%, 3.96%씩 밀렸고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둔 티웨이홀딩스(-4.89%)와 AK홀딩스(-3.26%), 예림당(-4.61%)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여행사업자 등 일부 기업의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2013년 중국 AI 발생 당시 이틀 간 평균 8% 하락한 레저업종 주가가 이후 9% 상승하며 1주일 만에 회복했고, 2003년 SARS 발생 시 떨어진 하나투어·강원랜드·파라다이스·호텔신라 등 4개 기업은 3개월 안에 주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 약세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배기자

한투證 "2020년 亞 대표 투자은행 도약"

통합 10주년 기념식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1일 열린 통합 1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직원들을 격려하며 표창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이 1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舊동원증권과 한투증권의 통합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5년 6월 1일 주식중개와 기업금융 분야에 강했던 동원증권과 우리나라 최초의 투자신탁회사로 출발해 자산관리에 강점을 가진 한투증권이 합병해 출범했다.

이후 10년간 한국투자증권 자기자본은 1조100억원에서 3조2200억원으로 3배 이상, 총자산은 3조9000억원에서 23조6000억원으로 6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7.15%로 5대 대형 증권사 중 1위를 기록하며 금융회사 최고의 M&A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기존 위탁수수료 수익에 의존해 오던 증권회사의 수익구조를 IB(기업금융)+AM(자산관리)의 이발(IB-AM)모델을 기반으로 개편해 다각화된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한 것이 합병 성공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회계연도 연결기준으로 3092억원의 영업이익과 22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업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더불어 한국투자증권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미래 수익원 확보와 투자 영토 확장을 위해 해외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상호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노고와 그 동안의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올해가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 변화의 원년임을 상기하며 리테일 사업부문의 혁신 추구를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2020년 아시아 대표 투자은행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김보배기자 bobae@

NH투자證, 中 ETF 거래 고객에 상품권 쏜다

이달말까지 선착순 1000명

NH투자증권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 ETF 거래 이벤트를 벌인다.

이벤트 기간에 'TIGER 차이나A레버리지(합성) ETF'(A204480)를 10주 이상 거래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 상품권 1만원, 합산 거래금액이 가장 많은 고객 30명에게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TIGER 차이나A레버리지(합성) ETF는 중국본토 우량주식 300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지수의 일간 변동률 2배 손익률을 목표로 운용된다.

소액으로 중국본토 대표 우량주에 쉽게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국내·중국 증시의 비슷한 개장 시간으로 장중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정재우 Smart금융본부장 상무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중국 관련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고, ETF 중에 연초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TIGER 차이나A레버리지(합성) ETF에 관심 있는 고객께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계절가전, 날씨따라 울고 웃는 시대 끝낸다

에어컨 '4계절 콘셉트' 도입 리스크 최소화 총력 기울여

제습기, 저전력·친환경 대세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를 앞두고 가전업체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여름 날씨에 따라 계절가전제품의 판매량이 춤추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며 올 여름 성수기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각 제조사는 소비자들의 눈길 사로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차별화된 제품과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앞세워 올 여름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 이른 더위와 늦은 장마를 예보했다. 실제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냉방기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여름 에어컨과 제습기 등 계절 가전 시장의 최대 변수는 날씨다. 최근 몇 년 동안 업체들은 날씨 때문에 울고 웃었다. 예컨대 여름에 저온 현상이 이어지면 에어컨이, 장마 기간이 짧으면 제습기가 직격탄을 맞는 식이다.

이 때문에 제조사들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에 '4계절 콘셉트'를 도입하고 있다. 냉방·공기청정·제습 기능을 결합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전 경쟁까지 불붙고 있다. 국내 에어컨시장 선두를 다투는 LG전자와 삼성전자도 올 여름 간판 에어컨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집어넣었다.

제습기 시장은 장마전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제습기 제조사들은 마른장마 탓에 울상을 지었다. 일부 업체는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을 정도다.

올해 제습기 제조사들은 저전력·친환경 제품을 앞세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위닉스 등은 향상된 인버터 컴프레서 기술과 저전력, 저소음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제습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에어컨과 제습기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제조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지난해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업체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박효순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상무가 1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정부와 학계 주요 인사들에게 eMBMS(evolved 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세계 첫 PS-LTE 재난안전통신망 시연

기지국 파괴 상황 통신 지원 여러명 동시 신속 연락 성공

삼성전자는 1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세계 최초로 PS-LTE(Public Safety-LTE) 표준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을 시연하고 관련 통신장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실제 통신망 환경을 구축하고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 중앙관제소와 재난현장간에 재난안전통신망 시연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동시에 여러 명에게 신속하게 연락 할 수 있는 PTT(Push To Talk) 기술과 재난지역에 인파가 몰려 있어도 다수의 통신단말에 HD급 고화질 영상을 끊김 없이 전송해주는 eMBMS 기술, 그리고 재난상황으로 기지국이 파괴되더라도 단말간 통신을 지원하는 D2D(Device to Device) 기술 등을 안정적으로 시연했다.

삼성전자가 이날 선보인 재난망용 스마트폰 단말기는 IP67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갖췄다.

이날 삼성전자가 선보인 통신장비와 단말기들은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지난 3월에 제정한 PS-LTE 표준 기술이 적용됐다.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는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안전망 관련 기술과 국제 표준을 선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LG전자 디자인 강화 '전기레인지' 출시

LG전자가 사용 편의성과 세련된 디자인, 안전성을 겸비한 프리미엄 빌트인 전기레인지를 1일 출시했다.

LG 디오스(DIOS) 빌트인 전기레인지(HM632RA)는 설치가 편리한 게 특징적이다. 사용자는 기존 제품과 달리 설치 시에 별도의 승압 공사가 필요 없어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3개의 화구 중 2개를 가장 높은 화력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조리를 빠르게 할 수 있다. 9단계의 화력조절 버튼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화력을 조절이 가능하다.

디오스 빌트인 전기레인지는 예약된 조리시간이 종료되면 화구가 자동으로 꺼지는 타이머 기능, 사용 중인 모든 화구의 화력을 한 번에 최저로 낮춰주는 일시 정지 기능도 탑재했다.

이 제품은 일반 전기레인지가 적용하고 있는 테두리를 없애 주방과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상판에 적용된 고급스러운 패턴 디자인은 음식물 찌꺼기 등의 이물질이 보이는 것을 줄여준다.

LG전자 모델이 1일 LG 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에서 LG 디오스 빌트인 전기레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디오스 빌트인 전기레인지는 상판에 독일의 명품 세라믹 글라스를 적용해 열과 외부 충격에 강해 더 안전해졌다. 세라믹 글라스는 일반 강화 글라스 상판보다 2배 이상 열에 강해 섭씨 750도의 고온까지도 견딜 수 있다. 잠금 버튼을 3초 누르면 화구가 켜지지 않는 잠금기능도 적용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잔열 표시등도 탑재했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장(사장)은 "사용 편의성, 디자인,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고품질의 조리기기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해 프리미엄 조리기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진기자

삼성전자 주도 동영상 전송 기술 북미·일본 채택

2018년부터 서비스

삼성전자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멀티미디어 전송 기술인 'MPEG 미디어 전송(MMT)'이 북미와 일본 차세대 디지털 방송 표준에 채택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경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 국내 대학이 참여해 공동 개발했다.

일본 NHK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 연구소 개방행사에 MMT 전용 전시관을 마련, 일본 차세대 디지털 방송 표준 MMT 기능을 활용해 방송망과 인터넷망 간 끊김 없는 전환 기능 등을 시연했다.

행사에서 NHK는 내년부터 MMT 기술을 활용한 8K 디지털 방송 서비스인 슈퍼 하이비전을 시험 방송한다고 밝혔다. 본 방송 서비스는 2018년부터 개시한다.

MMT 기술은 올해 초 북미에서도 차세대 디지털 방송 서비스 표준 핵심 전송 기술로 채택된 바 있다. 중국의 차세대 디지털 방송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상하이 교통 대학 역시 MMT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MMT 기술이 세계 차세대 디지털 방송 서비스 표준 핵심 기술로 각광받으면서, 기술 개발에 참여한 삼성전자와 국내 대학, 연구소는 그간 확보한 지식재산권으로 향후 상당한 로열티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용 삼성전자 DMC연구소장(부사장)은 "국내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궈낸 기술과 노하우를 차세대 방송 서비스 시장 관련 기업들과도 공유해 글로벌 방송 서비스 시장 개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SK 바이오사업 성과 가시화 美서 '수면장애 신약' 임상

SK그룹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 사업의 성과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SK(대표이사 사장 조대식)는 SK바이오팜이 개발한 수면 장애 치료 신약(SKL-N05)이 미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3상은 SK바이오팜의 신약개발 파트너인 미국 재즈사가 기면증과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주간 졸림증 환자를 대상으로 북미·유럽 지역 전문 병원에서 진행한다. 재즈사는 수면장애 분야 세계 최대 제약사다.

SK는 수면 장애 치료 신약(SKL-N05)을 독자 개발한 뒤, 우수한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했고, 2011년에 재즈사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술 라이센스를 수출한 바 있다. 재즈사는 2017년까지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한 후 미국 식품 의약품국(FDA)의 판매 허가를 거쳐, 2018년 신약을 시판할 계획이다.

SK는 기술 수출 계약에 따라 제조사로 부터 임상 시험 단계별 기술료를 받을 뿐 아니라 시판 이후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올리게 된다. 또한,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주요 12개국 시장에 대한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신약 출시 후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직접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문경기자 hm0108@

바닥 못 찍은 韓경제… 수출입액 5개월째

4분기째 0%대 성장률 기록
기업 투자심리도 얼어붙어

한국경제가 바닥을 찍지 못하고 계속 하강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이 423억9200만 달러로 작년 같은달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3% 줄어든 360억7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수출입액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개방형 경제구조인 한국 경제에서 수출입액 감소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비해 0.8% 성장했다. 이는 4분기째 0%대의 저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 심리도 급격히 냉각됐다. 한은의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2%로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도 사상 최저인 마이너스 1.49%로 떨어졌다.

여기에 기업의 영업이익률마저 줄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3년 4.7%에서 2014년 4.3%로 하락했다.

이 같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에는 중국 경기상황과 일본의 엔화 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SK경영경제연구소는 최근 SK이노베이션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성장의 경착륙,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금융 불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중국 경착륙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 경제는 위기 발생 첫해 경제성장률이 2.9%포인트 하락하고, 이후에도 위기 이전보다 1%포인트 낮은 수준의 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SK경영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씨티리서치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7%대로 성장률이 둔화된 시기 한국 수출의 탄력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지만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제한과 경기 둔화로 한국이 직접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다. 그러나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 노력과 수입 감소로 한국의 대중수출은 감소 추세다.

중국에서 총수입 대비 가공무역의 비중은 지난 2000년 41.1%에서 지난해 25.2%로 크게 감소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가공무역 금지 품목수를 241개에서 지난해 1871개까지 늘렸다.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원자재 수출도 줄었다. 1분기에 대중 원자재 수출은 전년대비 15.2%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5.8% 줄었다.

철강과 섬유관련 가공무역은 지난 2008~2014년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1분기에 가정용 기기와 철강, 섬유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3.3%, 4.3%, 7.9% 감소했다.

여기에 일본의 엔저 공세로 인해 한국의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말 123 엔 후반대까지 올라 2002년 12월 초 이후 12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원·엔 재정환율은 작년 5월 29일 100 엔당 1000.89원에서 1일 현재 895.50원으로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가격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KT 스카이라이프 '다채널 UHD 방송' 전국 송출

이남기 사장 "방방곡곡 고품격·고화질 방송 전할 것"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가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 '다채널 UHD(초고화질) 방송' 송출을 시작했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용 채널만 3개로 케이블 방송과 IPTV, 위성 방송을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UHD 채널을 갖게 됐다.

1일 서울시 상암동 스카이라이프 본사에서 열린 'UHD 상용화' 기자간담회에서 이남기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의 3채널 UHD 방송은 국내 최초 다채널 UHD 서비스로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UHD 채널 수를 자랑한다"며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고품격·고화질 UHD 방송을 전국 방방곡곡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UHD라이프는 스카이라이프'라는 인식을 넓혀 스카이라이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에서 열린 'UHD 상용화'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6월 개국한 'SkyUHD2(기존 SkyUHD)'채널에 더해 UHD 전용 채널 2개(SkyUHD1, UXN)를 추가로 론칭하고 1일 낮 12시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SkyUHD1은 드라마·오락, SkyUHD2는 네이처·다큐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하고, UXN에서는 CJ E&M의 영화·드라마 등 인기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인다.

자회사 스카이라이프TV가 제작·구매한 UHD 방송 콘텐츠 450여 시간에 더해 올해 안으로 1000시간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최고의 화질을 구현하는 기술력과 전국 송출 커버리지 또한 스카이라이프 UHD만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새로 출시한 UHD 셋톱박스에 세계적인 유·무선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개발한 최신형 싱글칩 'BCM7376'을 탑재했다. 브로드컴 측은 이 칩이 기존 HD 디스플레이의 4배 해상도에서 10비트의 생생한 컬러와 초당 60프레임의 비디오를 제공해 장편 영화나 스포츠 생중계에 최적화된 최상의 밝기와 선명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CGV 제휴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070 전화 쓰면 CGV 영화 '공짜'

LGU+, CGV 제휴요금제

LG유플러스가 CGV와 손잡고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영화관람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CGV 제휴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CGV제휴요금제는 모두 3종으로 기존에 070 인터넷전화에서 제공되던 무료통화와 발신번호 표시, 착신전환 등의 부가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 고객에게 매월 무료 영화 예매권 1장과 동반 1인 25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월 기본료 8500원인 CGV 망내 무한요금제는 자사 070인터넷전화와 U+모바일간의 무제한 무료통화를 제공한다. 월 기본요금이 1만1500원인 CGV망내무한100 요금제는 자사 유무선 무제한 무료통화와 망외(타사 집전화, 모바일) 10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

또한 월 1만4500원인 CGV 홈보이 스탠다드 요금제는 e북 1만여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홈 도서관 서비스와, 가정의 침입 감지 및 영상을 저장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홈CCTV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모든 요금제는 U+인터넷과 함께 이용 시 월 2000원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문경기자

SKT '클라우드 스트리밍' 자회사 만든다

법인 내달 1일 출범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자회사 SK플래닛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사업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분할해 SK텔레콤 100%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SK플래닛은 클라우드 스트리밍 사업 분할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승인을 마쳤다.

SK텔레콤은 주요 미디어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앞선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사업 확장과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사업을 담당할 신설 법인은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사업은 단말(셋톱박스)에서 수행하던 연산 기능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직접 처리하고 단말로 전송해 화면(TV 모니터 등)에 보여주는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채택한 IPTV 등의 미디어 사업자는 단말을 고도화하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고성능 · 고품질의 사용자 환경 및 각종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솔루션과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고성능 클라우드 서버에서 모든 처리를 담당하므로 원하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데 소요되는 반응 시간을 최대 30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정문경기자

대우조선해양 인사… 전무 이상은 보류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1일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임원 인사는 최고경영자(CEO) 교체 지연 등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임원의 공동 책임을 물어 전무 이상 승진 인사는 연말까지 보류했다.

다만 수석위원은 임원이 아니고 무한 책임의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일부 인원을 상무로 신규임원으로 선임했다고 대우조선은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발령된 승진자 명단이다.

◇ **상무(8명)**

▲ **오두환, 구신본, 안정주, 우제혁, 김진태, 한성곤, 안호균, 지영택.**

/이정필기자 roman@

이재용 부회장, 이사장 취임 후 첫 공식석상

이건희 회장이 직접 챙겼던 '2015 호암상 시상식'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15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지난달 15일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삼성그룹 후계자로서의 상징적 지위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던 만큼, 이날 시상식 참석은 첫 공식 행사로 이목이 집중됐다. 그동안 호암상 시상식은 이건희 회장이 직접 챙겨왔지만 지난해 쓰러진 이후로 불참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시상식 직전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시상식 내부로 들어왔다.

이 부회장은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과 함께 무대 정면 첫 번째 열에 앉아 시상식을 지켜봤다. 이 부회장이 직접 시상을 하거나 축사를 전하는 등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시상식을 중계하던 화면에서도 이 부회장의 모습이 비친 것은 단 한 차례 뿐이었다.

이날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호암상 수상자들은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의 쾌유를 비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이 부회장은 내빈과 인사한 후 무대 위로 올라가 호암상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시상식 후 이 부회장은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수상자 축하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건 전 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각계인사 총 5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등 그룹·계열사 수뇌부도 자리에 함께 했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상 천진우 박사(53·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공학상 김창진 박사(57·미UCLA 교수) ▲의학상 김성훈 박사(57·서울대 교수) ▲예술상 김수자 현대미술작가(58) ▲사회봉사상 백영심 간호사(53) 등으로 각 3억원의 상금과 순금 메달을 받았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15 호암상 시상식'에서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국내완성차 5사, 지난달 71만6813대 팔았다

해외판매 줄어들어 전년대비 4.2% 감소

국내 완성차업체 5사가 지난달 전년 대비 감소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내수 판매는 비슷했지만 해외 판매가 줄어든 탓이다.

1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등 5개사는 지난달 국내외 글로벌 시장에서 총 71만6813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한 수치다. 국내에서는 0.2% 증가한 12만1491대를, 해외에서는 5.0% 감소한 59만5316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5만4990대, 해외 33만4309대 등 총 38만9299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한 수치다. 국내 판매는 8.2%, 해외 판매는 6.1% 감소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4만10대, 해외 20만2044대 등 총 24만2054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수치다. 해외판매는 7.0% 감소했다.

1~5월 기아차의 누적 판매실적은 국내 19만7572대, 해외 106만7950대 등 총 126만55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 1만2202대, 수출 4만2474대 등 총 5만4676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내수판매는 1.6% 감소했지만 수출은 5.2% 증가했다.

한국지엠의 올해 1~5월 누적 판매대수는 총 25만2693대(내수 5만9124대, 수출 19만35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내수 6542대, 수출 1만2332대 등 총 1만8874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39.5% 증가한 수치다. 내수는 11.6% 감소했지만 수출은 101.1%가 증가했다.

닛산 로그는 총 9900대가 수출돼 르노삼성의 수출을 견인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 7753대, 수출 4229대(반조립부품수출 포함) 등 총 1만1982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한 실적이다. 내수는 47.1% 늘고 수출은 37.9% 감소했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티볼리가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 2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판매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며 "티볼리 글로벌 론칭 확대와 함께 공격적인 신시장 개척 및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올해 판매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필기자 roman@

현대차, 서울대와 글로벌 미대생 유망주 지원

현대자동차가 전세계 미술대학(원) 재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아트유니온'을 구축해 차세대 아티스트 발굴에 나선다.

현대차는 국내외 미술대학 학생이 문화예술계 전문가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1일 아트유니온을 열었다.

아트유니온은 전세계 미술대학(원) 재학생이면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게재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 온라인 네트워크다.

▲저명한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큐레이터, 미술대학 교수 등 문화예술계 글로벌 인사들의 예비 아티스트들을 위한 인터뷰 등의 콘텐츠로 구성된다.

현대차는 아트유니온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재 활동 중인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신진 아티스트 발굴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멘토링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등 10여명이 멘토로 참여해 작품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창작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정필기자

현대로템, 1000억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수주

현대로템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1001억원 규모의 9호선 전동차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오는 2017년 12월까지 창원공장에서 4량과 6량 타입의 전동차 9편성과 기존 운행 중인 4량 편성을 6량으로 증결하기 위한 증편물량 32량을 생산해 납품하게 된다.

사측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지난 2009년 개통 이후 승객이 연평균 12% 가량 늘어날 정도로 이용수요가 많은 노선이다.

최근 2호선 연장구간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더욱 올라가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차량증편 등 혼잡완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했던 구간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9호선 전동차 추가물량 수주를 기점으로 서울시를 도와 ▲서울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납품일정 단축 ▲서울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 등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대로템은 조속한 시일 내 노선에 차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물량에 대한 납품일정을 모두 계획보다 앞당길 예정이다. /정용기기자

대한항공, 유럽·북아프리카 공동운항 확대

대한항공이 해당국 정부 인가 조건으로 글로벌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알이탈리아항공과 유럽·북아프리카 노선에 대한 공동운항을 강화한다.

대한항공은 1일부터 현재 인천~파리 구간 공동운항사인 에어프랑스와 공동운항을 확대한다.

대상 노선은 파리를 기점으로 에어프랑스가 운항하는 2개의 프랑스 국내선(파리~리옹, 툴루즈)과 8개의 국제선(파리~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제네바, 베를린, 뒤셀도르프, 뮌헨, 슈투트가르트, 카사블랑카)이다.

기존에 공동운항 중이던 파리~니스, 파리~마르세유 구간은 운항 횟수가 주 7회에서 주 14회로 늘어난다.

알이탈리아항공과의 공동운항도 강화한다. 현재 알이탈리아항공과 공동운항중인 인천~로마 노선에 알이탈리아항공이 이달 4일부터 신규 취항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인천~로마 노선 스케쥴도 알이탈리아항공의 주 3회가 더해져 주 6회로 늘어나게 된다. /이정필기자

자존심 건 면세점 혈투… 티켓 누구 품으로

서울 3곳 등 신규 면세점 입찰 마감… 낙찰자 내달 결정
中企 경쟁율 14대 1…상인 상생모델 제일평화상가 주목

신규 면세점에 대한 입찰 신청이 1일 마감됐다.

관세청은 이날 신청 서류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르면 내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4곳 가운데 서울 2곳은 사실상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 경쟁입찰이다. 나머지 서울 1곳과 제주 1곳은 중소·중견기업 제한 입찰로 이뤄진다.

이날 면세점 대진표에는 대기업 7곳, 중소·중견기업 14곳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제한 입찰은 지난달 30일 제일평화상가에 이어 막판 세종호텔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쟁률이 14대1까지 치솟았다.

◆ 현대·삼성·한화 등 대기업 경쟁률 3.5대 1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현대백화점·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SK네트웍스(워커힐)·한화갤러리아·롯데면세점·이랜드그룹·신세계그룹 등 7곳이다. 서울 면세점 시장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는 독과점을 의식한 듯 중소기업인 중원면세점과 파트너를 맺고 서울 동대문 피트인을 면세점 후보지로 정했다.

호텔신라 역시 독과점 논란을 피하려는 듯 현대산업개발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한류·관광·쇼핑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서울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여의도 63빌딩을 면세점 후보지로 정했다. 쇼핑·엔터테인먼트·식음료 시설을 유기적으로 엮은 문화쇼핑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코엑스점을 후보지로 선정한 현대백화점그룹은 중견·중소기업과의 연합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신세계그룹은 국내 1호 백화점인 명동 본점 명품관 전체를 면세점 후보지로 정했다.

황용득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대표(사진)가 1일 오전 9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을 직접 방문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화갤러리아 제공

SK네트웍스는 동대문 케레스타(옛 거평프레야)를, 이랜드는 홍대입구 서교자이갤러리를 면세점 부지로 택하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날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입찰서를 내러 온 현대백화점 전봉식 신규사업추진TF상무는 "코엑스점은 중국 관광객의 분산 효과로 볼 때 최적지로 추후 한전부지 개발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면세사업 유경험자인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견·중소기업 입찰 경쟁률 14대 1…제일평화상가 다크호스 부상

중소·중견기업 간의 경쟁은 한층 치열하다.

유진기업·파라다이스그룹·그랜드관광호텔·중원면세점·한국패션협회의 동대문듀티프리·하나투어·하이브랜드·키이스트·제일평화컨소시엄 등에 이어 세종호텔이 이날 면세점 법인을 설립하고 시내면세점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세종면세점은 명동 세종호텔 내 1~3층 3개층 3305㎡(1000평) 규모를 면세점 판매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청 마감 하루 전날인 5월31일에는 배용준·김수현 등 한류스타의 소속사인 키이스트가 인천·청주 면세점을 운영하는 시티플러스와 합작법인을 구성한 '서울면세점'을 발표했다.

마감 이틀전인 5월 30일에는 제일평화 주주와 입점 상인이 구성한 '제일평화 컨소시엄' 등이 도전 의사를 밝히며 경쟁을 한층 뜨겁게 달궜다. 특히 '제일평화 컨소시엄'은 제일평화 상가를 운영하는 1600명이 참여해 관세청이 밝힌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모델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평가다. 초기 자본금은 200억원 중 60%에 달하는 120억원을 상인들이 출자하며 40%는 제일평화 시장 최대주주인 신 홍선 건설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입찰서를 낸 '제일평화 컨소시엄' 이윤하 추진 단장은 "이번 컨소시엄은 외부 자금 없이 제일평화시장상인들이 100% 출자하는 것"이라며 "최근 동대문에 외국인이 많이 오면서 대기업들이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일궈온 이곳에 우리가 면세점을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은미·박상길기자 21cindiun@

'오사카 명물 치즈타르트 맛보세요' 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오픈한 일본 치즈타르트 전문 브랜드 '파블로' 매장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본점 매장은 오사카 매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본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한 달간 제품을 직접 제작해 현지 맛을 재현한다. /연합뉴스 제공

온라인 최저가 보다 싼 '티몬마트' 오픈

생필품 500개 브랜드 최대 10% 저렴하게 판매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티몬이 생필품 500개 브랜드 3000여종을 온라인 최저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티몬마트'를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

티몬마트는 3000여 종의 상품을 선정해 전담팀이 매일 전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핵심상품의 경우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최대 10%가량 싸게 책정해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티몬마트에서는 오프라인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처럼 종류별 상품 탐색 형태로 검색기능을 강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한 번에 둘러보고 다양한 종류의 단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배송받을 수 있는 묶음배송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칫솔·화장지·세제와 식료품 등 다양한 품목을 하나씩 소량 구매 하더라도 합계가 2만원 이상일 시 무료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티몬은 최저가 상품의 종류를 목적성 구매형태로 가장 많이 찾는 대중적인 생필품 품목에서 점차 카테고리별 트렌드 상품과 시즌상품, 해외유명상품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티켓몬스터 유한익 핵심사업추진단장은 "티몬의 전체 매출에서 생활·식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가량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 배송 및 환불 등 모든 구매 절차에서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모바일 마트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폭풍성장' 모바일쇼핑…4월 거래액 전년비 82%↑

모바일 쇼핑이 폭발적 성장을 보이며 온라인 거래액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조8610억원으로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 4조3310억원의 43%를 차지했다.

4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6%, 전월보다는 4.6% 증가했다. 관련 통계치가 나오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은 작년보다 22.7%, 전월 대비로는 0.6% 느는 데 그쳤다.

4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가장 많은 상품은 여행 및 예약서비스(2970억원)로 전체 거래액의 16.0%를 차지했다. 이어 의류(2630억원), 생활·자동차용품(1960억원), 음식료품(1880억원), 화장품(1470억원) 등의 순이다. 최근 모바일 쇼핑 성장세가 가장 돋보이는 상품은 음·식료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래액이 125.0%나 급증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122.8%), 화장품(119.4%), 사무·문구(115.7%) 거래액도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CHAPTER 1.
낭만여행

〈미드나잇 인 파리〉 [6/4 ~ 6/10]
〈비포 미드나잇〉
〈사랑을 카피하다〉

CHAPTER 2.
예술과 인생

〈마지막 4중주〉 [6/11 ~ 6/17]
〈그레이트 뷰티〉
〈리스본행 야간열차〉

CHAPTER 3.
사랑의 속성

〈아무르〉 [6/18 ~ 6/24]
〈우리도 사랑일까〉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CHAPTER 4.
나를 찾아서

〈와일드〉 [6/25 ~ 7/1]
〈프란시스 하〉
〈꾸뻬씨의 행복여행〉

CHAPTER 5.
가족의 의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7/2 ~ 7/8]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자전거 탄 소년〉

CHAPTER 6.
영혼을 울리는 음악

〈비긴 어게인〉 [7/9 ~ 7/15]
〈인사이드 르윈〉
〈위플래쉬〉

주최 • 씨네큐브 · 티캐스트 cinecube tcast 후원 • 흥국생명보험(주) 예술영화관 씨네큐브는 문화콘텐츠의 선두주자 티캐스트가 운영하고 흥국생명이 지원합니다. www.icinecube.com www.facebook.com twitter.com/iCinecube
협력 • 그린나래미디어(주) | 더블앤조이 픽쳐스 | (주)뮤제엔터테인먼트 | 미디어소프트 | (주)블루미지 |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 영화사 진진 |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 찬란 | 판씨네마(주) | (주)팝엔터테인먼트 | CGV아트하우스

'캠핑용품 7종 기획전' 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영국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마운틴이큅먼트의 원터치 텐트 등 캠핑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30일까지 텐트, 침낭, 랜턴, 멀티박스 등 7종의 캠핑용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제공

분유업계, 中 규제 강화에 촉각

영유아 식품안전법 강화 현지 마케팅·품질로 승부

중국이 하반기 영유아용 식품법을 강화하자 국내 분유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분유 등 영유아용 식품의 품질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식품안전법을 만들었다. 새로운 법에는 주문자상표부착(OEM) 금지, 생산협력업체 등록제 실시 등의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원재료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중국이 요구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중국의 감독 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 탄생한 식품안전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된다. 이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분유 업계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국내를 비롯해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는 업체에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며 "중국이 자국의 분유를 키워주기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규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매년 높아지는 규제와 관계없이 품질로 승부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기조에 따라 성장이 제한적인 국내 시장과 달리 중국 분유 시장은 지난해 18조원 규모로 내년에는 23조원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 완화로 분유 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매일유업은 2007년 중국 분유 시장에 진출해 첫해 80만 달러에서 2012년 1200만 달러, 2013년 2600만 달러, 2014년 31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향후 중국 내 2·3선 도시 영유아전문매장 입점 확대를 통해 매출 규모를 늘리고 특수분유 라인(급성설사·조산아·식품알레르기 분유) 확대를 통한 영업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11년 중국 분유시장에 본격 진출해 첫해 503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매출은 2000만 달러로 3배 가량 늘었다. 파스퇴르는 2007년부터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기 시작해 2012년 1800만 달러, 2013년 2000만 달러, 지난해 3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밖에 아이배냇은 지난해 중국에 진출했고 7월 9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앞두고 있다. 일동후디스도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중국 진출을 검토 중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허니버터칩' 생산량 두배 늘린다

해태, 원주시와 MOU 체결 강원도 문막에 공장 증설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생산량이 내년 두배로 늘어난다.

해태제과(대표 신정훈)는 1일 강원도, 원주시와 '허니버터칩 신규 공장 증설에 관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 문막공장 인근에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해태제과가 일본 가루비사와 공동으로 240억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신규 공장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7월 착공해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건평 약 1만㎡ 규모로 기존 공장 생산라인 보다 2배 이상의 생산효율성을 가진 최첨단 감자칩 생산설비를 도입한다.

공장이 완공되면 허니버터칩 월 생산액은 현재 75억원 수준에서 최대 15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내년에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허니버터칩 품귀 현상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것"이라며 "이번 MOU 체결로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감자칩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하이트진로, 중동 맥주 시장 뚫는다

'하이트스트롱' UAE 수출 국내 미출시 고알콜 맥주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이라크에 이어 이달부터 아랍에미리트에도 맥주를 수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출 제품은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는 고알코올(6.4%) 맥주 하이트스트롱(Hite strong)이다.

하이트스트롱은 수출전용 맥주로 라거맥주 본연의 부드러운 목넘김을 유지하면서도 강하고 풍부한 맛이 특징이다. 높은 도수의 맥주를 선호하는 중동지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수출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할리데이 그룹(Holiday Group)과 제휴를 맺었다.

할리데이 그룹은 주류 수입, 유통, 무역, 물류, 호텔과 외식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규모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이다.

올해 수출목표는 6만 상자(1상자=500㎖*20병 기준)로 컨테이너 30대 물량이다. 하이트진로는 2017년까지 연간 20만 상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인집 하이트진로 해외총괄 사장은 "아랍에미리트는 이라크에 이은 두 번째 중동 전략시장으로 한국 맥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동지역에 한국 맥주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현지 기업과 제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애경 '수분충전 수딩 윤기코팅 샤이닝' 출시

애경(대표 고광현)의 케라시스 네이처링에서 수분충전 수딩 샴푸·컨디셔너와 윤기코팅 샤이닝 샴푸·컨디셔너 등 2종을 출시했다.

케라시스 네이처링 샴푸는 두피 모공의 크기가 얼굴모공보다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해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해 100% 식물유래 계면활성제를 함유했다.

수분충전 수딩 샴푸는 비타민 A·E와 지방산 등이 풍부한 알로에 베라 성분이 모발에 수분을 공급해 머릿결을 촉촉하고 생기있게 가꾸어 준다.

식탁에 부는 '슈퍼푸드' 열풍… 잡곡 매출 32배 껑충

롯데마트 '퀴노아' 유통단계 줄여 저렴하게 내놔

웰빙 열풍을 타고 잡곡 내에 슈퍼푸드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슈퍼푸드'란 영양이 풍부하고 음식 첨가물의 독성을 해독해 노화방지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귀리·퀴노아·렌틸콩·치아씨드 등이 있다.

1일 롯데마트가 잡곡류의 분기별 매출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전체 매출은 5.0%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귀리·퀴노아·렌틸콩 등 '슈퍼푸드 잡곡' 매출은 32배(3195.6%) 가량 크게 신장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잡곡류 내에서 0.2%에 불과했던 '슈퍼푸드 잡곡'의 매출 구성비가 올 1분기에는 10.3%까지 증가했다.

슈퍼푸드 잡곡의 인기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최근 고령화·소득 수준 증가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에 고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롯데마트는 4일부터 10일까지 유통 단계 개선을 통해 '미국산 퀴노아(400g)'를 기존 상품 가격 대비 절반 수준인 9900원에 판매한다.

LG생건 '후 공진향: 설 미백 빛 앰플' 선봬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한 달 집중 관리 미백 프로그램 '후 공진향: 설 미백 빛 앰플'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후의 궁중비방인 후궁중백산삼·진주산삼·백산삼세라마이드 등을 담은 총 16개의 앰플로 구성됐다.

후궁중백산삼은 귀한 원료인 산삼의 백(白)의 부분만을 취한 백산삼을 고열로 포제한 성분으로, 얼굴빛을 화사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

공항철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공항철도 도심공항터미널 '얼리체크인' 인기

공항철도 서울역, 대한·아시아나·제주항공 입주
탑승수속·출국심사 서비스… 직통열차 할인도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인기다.

요즘은 해외여행 시즌이 특별히 없다. 연중 내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주 5일제로 인해 1~2일 연차를 내면 웬만한 동남아지역은 쉽게 다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말을 활용해 해외여행을 갈 경우 알아두면 좋은 '여행팁'이 있다. 바로 공항철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의 '얼리체크인(early check-in)' 서비스다.

공항철도 서울역에는 항공사 탑승수속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 등 출국수속 서비스를 해주는 도심공항터미널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 입주해 있어 이들 항공사 이용객이면 눈여겨 보자.

이곳에서는 국내외 여행객들로 항상 붐벼 오랫동안 줄서는 인천공항에서와 달리 10~20분에 모든 수속이 끝난다.

특히 출국당일에 한해 미리 탑승수속과 수하물 탁송을 해주는 이곳 '얼리체크인' 서비스는 직장인과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평일 오후나 퇴근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직장인의 경우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서울역에 들러 짐을 보낸 뒤 오후나 퇴근후 홀가분하게 인천공항으로 가면 되니 연차를 덜 내도 된다. 외국인의 경우 호텔체크인 후 곧바로 서울역에서 얼리체크인을 한뒤 짐없이 남산, 남대문, 명동 등 도심관광이나 쇼핑에 나서니 편리하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서비스는 직통열차 이용객에 한해 서비스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역~인천공항역을 논스톱 43분에 운행하는 직통열차는 11개 모든 역에 정차하고 일반 전철과 같은 일반열차와 달리 KTX와 같은 지정좌석에 화장실도 갖추고 있다.

직통열차의 편도 운임은 8000원이지만 다양한 할인제가 있어 알아두면 유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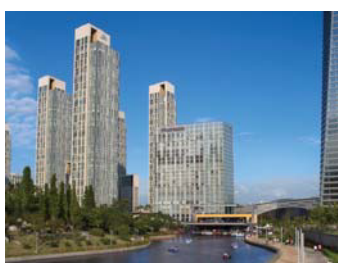
4인 이상 이용시 1인 6000원,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하면 6900원으로 할인된다. 또 서울역에 있는 기업은행과 도심공항터미널 입구 우리은행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도 1인 6900원으로 할인된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쉐라톤 인천 호텔서 꿈 같은 휴가 펼쳐진다

여름패키지 5종 출시

송도 신도시의 쉐라톤 인천 호텔이 특별한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써머 이스케이프' '써머 온 더 클럽' '시원한 여름 밤의 꿈' '나도 파티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창의적인 여름' 등의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써머 이스케이프 패키지'는 넓은 유리창을 통해 도시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디럭스 시티 뷰 1박,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 성인 2인 조식을 제공한다.

'써머 온 더 클럽 패키지'는 클럽 시티 뷰 1박, 라운지조식과 이브닝칵테일 해피아워 이용 등 클럽라운지의 혜택과 인룸 서비스로 제공받는 베네피자 또는 쉐라톤 치킨 그리고 크래프트 맥주 2병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패키지는 쉐라톤 피트니스 및 실내 수영장 무료 이용, Link@Sheraton에서 인터넷 무료 이용, 무료 주차가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www.sheratonincheo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32-835-1004 /정은미기자 21cindiun@

여행바보KRT, 유럽 여행객에 포인트 지급

올 해 차별화된 유럽여행 코스를 선보여 인기 몰이 중인 여행바보 KRT가 유럽 예비 여행객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

KRT(대표이사: 장형조, www.krt.co.kr)는 "올 여름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6월 15일 까지 파격적인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모션은 현재 KRT에서 판매중인 유럽 상품을 4인 이상 예약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인 이상 합산 금액 1000만원 이상 결제 시 70만원, 2000만원 이상 결제 시 150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혜택은 KRT의 문자 및 메일 수신을 동의한 홈페이지 회원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문의:KRT홈페이지(www.krt.co.kr) 대표번호(1588-0040) /최치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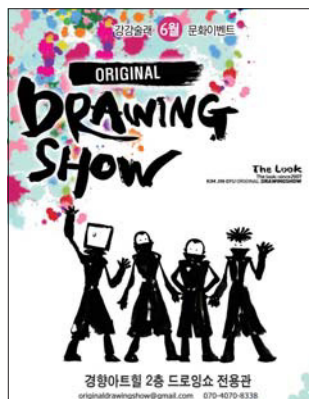
"온 가족 즐기는 공연 선물"

강강술래, 오리지널 드로잉쇼 티켓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리지널 드로잉쇼' 공연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술과 무대의 환상적인 만남 '오리지널 드로잉쇼'는 세계 최초의 미술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으로 그림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이 관객 앞에서 순식간에 이뤄지며 미술의 특수효과를 통해 온 가족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물한다.

어둠속에서 드러나는 수수께끼 같은 빛드로잉, 비트있는 음악을 배경으로 한 핑거드로잉, 관객참여로 이뤄지는 플라워드로잉, 빛으로 그려내는 미녀와 야수 야광드로잉, 마블링 기법으로 재해석한 반고흐의 명작을 보여준다.

이달 30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

댓글을 남기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티켓(1인2매)을 선물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이대목동병원, 여성 흡연 위험성 강조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사진)는 여성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제시했다고 이대목동병원은 밝혔다.

천 교수는 "여성은 니코틴 대사에 관여하는 'CYP2A6'이라는 효소의 활성도가 남성보다 커서 니코틴에 중독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남성보다 담배를 끊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흡연을 하면 유방암·자궁경부암 등 부인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금연 방법으로 ▲서서히 줄이지 말고 한 번에 끊어라 ▲흡연을 대체할 습관을 만들어라 ▲함께 금연할 친구나 조력자를 만들어라 ▲담배 구매 비용을 아껴 스스로를 보상해 주어라 ▲금연 클리닉을 적극 활용하라 등 5가지 수칙을 제안했다.

/복현명기자 hmbok@

중동, 저유가·정세불안에 메르스까지 '설상가상'

건설사 해외수주액 68억불… 공시건수도 절반 줄어
업체별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대응지침 전달 분주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중동이 유가 하락과 정세불안으로 맥을 못추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ERS)의 확산까지 겹치면서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건설사의 중동 누적수주액은 68억232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에 불과하다. 이 기간 공사 건수도 53개에서 24개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전체 해외 수주액 중 중동이 차지하던 비율도 지난해 78%에서 올해는 29%로 급감했다.

중동의 수주 급감 원인으로는 정세불안과 저유가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의 중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

140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도 발주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정유공장 수주의 4번 패키지는 국내 건설기업 컨소시엄들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제2중동붐'의 신호탄으로 주목받았다.

이 패키지에는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한화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기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는 라스 타누라 대형 프로젝트(20억 달러 규모)의 재입찰을 잠정 중단했다. 카타르석유공사도 65억 달러 규모의 알카라나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60억 달러 규모의 교량·터널 사업인 도하 샤크 크로싱 프로젝트도 1년 뒤로 늦춰졌다.

'이슬람국가(IS)'로 인한 중동정세 불안도 국내 건설사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IS가 이라크 최대 규모인 바이지 정유시설을 공격해 국내 건설사의 안전이 위협받았다.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에서는 한화건설이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그다드 남쪽으로 120㎞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카르발라 정유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 메르스 질환도 복병으로 등장했다.

메르스는 현재까지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지역(특히 사우디아라비아)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지역에서 체류했거나 낙타시장 또는 농장 방문, 낙타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 낙타와의 접촉 사례가 보고됐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메르스 감염자는 18명이며 자가·시설 격리 중인 대상자도 682명에 달한다.

중동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업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지난달 29일 중동 건설 현장과 지사를 비롯해 모든 임직원에게 메르스 예방수칙과 대응지침을 전달했다. 의심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토록 했다. 중동출장 복귀 후에는 5일 이내에는 체온측정과 문진 등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중공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GS건설과 대림산업도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해 메르스 증후군의 대응지침을 공지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8일 중동으로 출장을 나가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당초 열릴 예정이던 '중동 지역 전망' 세미나에서도 메르스에 대한 교육 시간이 포함됐다. 해건협이 운영하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가입자 2만8000명에게 메르스 관련 메일을 송부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해외수주의 핵심 축이던 중동의 정세가 악화되면서 전체 수주액도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현지 공사 중인 곳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몇 년간 남미와 오세아니아 등 해외수주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를 추진해온 만큼 국내 건설사의 수주액 감소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전국 월세 6개월째 보합… 수도권은 하락

전국 주거용 부동산의 월세가격이 6개월 연속 보합세를 연출했다.

한국감정원은 5월 8개 시·도 주거용 부동산의 월세가격이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은 0.1% 하락했지만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지역은 임차인의 월세 기피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며 0.2% 뒷걸음질쳤다. 반면 인천은 보합을 나타냈다. 또 서울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들어가면서 0.1% 상승했다.

지방광역시는 보합세인 광주·대전·부산지역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도 변동이 없었다. 다만 울산은 온산공단·효문공단 등 산업단지 인근 배후수요 증가로 0.1% 올랐다. 대구는 공급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0.1%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만 0.1% 내리고 아파트, 단독, 오피스텔은 보합으로 조사됐다.

월세가격동향조사 결과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롯데건설은 현충일을 앞두고 지난 주말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롯데건설 임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묘역단장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우미건설 '동탄역 앨리스빌' 상가 분양

우미건설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광역비즈니스컴플렉스 C12블록에서 '동탄역 앨리스빌'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을 분양한다.

동탄역 앨리스빌은 KTX·GTX 동탄역과 약 200m 거리의 초역세권 상가다. 영국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해 유럽풍의 스토리텔링형 상업시설로 꾸며진다. LH동탄사업본부가 인근 C11블록에 연면적 10만㎡ 대형쇼핑몰을 유치, 입지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아파트 617가구, 오피스텔 262실과 함께 복합단지로 조성돼 고정수요가 확보된다. 또 반경 1.5㎞ 이내에는 총 35개 단지, 3만1971가구가 입주한다. 여기에 동탄테크노밸리, 삼성반도체 등 종사자와 동탄역을 통해 유입되는 인근 지역민까지 총 70만 명의 배후수요를 갖추게 된다.

동탄역 앨리스빌 조감도.

일부 상가에 테라스와 데크 설계를 적용해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관 역시 특화 디자인을 통해 이국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특히 앨리스분수광장, 시계탑 등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테마로 한 테마 구조물은 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탄역 앨리스빌은 우미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현재 동탄1신도시에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분양문의: 1800-7480 /박선옥기자

분양시장 '이색' 커뮤니티시설 경쟁

실내수영장·반려동물호텔·영어마을 등 조성
이용률 저조해 관리비만 오르고 방치되기도

건설사들이 단지 내 이색 커뮤니티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단순한 거주공간에서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다 차별화된 시설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에 공급한 '부천 아이파크'에 실내수영장을 만들었다. 또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도 마련해 단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입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실내수영장을 갖춘 아파트로 소문이 나면서 같은 값이면 인근 아파트보다는 부천 아이파크를 많이 찾는 편"이라며 "멀리 가지 않고도 운동할 수 있고, 비용도 사설 수영장보다 저렴해 만족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조합원에 모집에 나선 '송도 포레스트카운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내 반려동물호텔을 조성키로 했다. 또 국제업무지역에 지어지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회의실과 멀티룸 등 비즈니스공간을 마련했다.

반도건설은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에 의정부 최초로 2층 규모의 별동학습관을 건립했다. 이곳에서는 YBM과 연계해 '영어마을(가칭)'을 조성하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영어회화와 문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가 진화하고 수요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면서 건설사들도 입주민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색 커뮤니티시설을 고민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시설을 잘 갖춘 단지가 분양할 때도 인기가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오르는 단점이 있다. 또 관리비를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차별화를 이유로 정작 입주민에게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과도하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 제공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수요자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본래 모습 보여준 작품은 처음이에요”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도지원

배우 도지원(49)은 드라마 ‘여인천하’(2001)에서 경빈 박씨 역으로 ‘뭬야’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대한민국 대표 악녀가 됐다. 지난달 종영된 KBS2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선 강순옥(김혜자)네 장녀이자 똑똑한 방송인 김현정으로 열연했다.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인물이다. 그러나 정작 그는 “사람을 모질게 대하는 캐릭터가 버겁다”며 똑 부러지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자신의 실제 성격을 이야기했다.

“‘여인천하’ 이후 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동료마저도 저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죠. 제 실제 성격은 보이는 이미지와 달라요. 현정이는 할 말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못해요. 어머니 덕분에 상대를 배려하는 게 익숙해진 거 같아요. 늘 지면서 살라고 조언하시거든요. 현정이와 비슷한 점은 일할 때 열심히 한다는 거죠.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현정이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해맑고 풀어진 현정이도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연기 했던 드라마고, 시청자도 저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제 본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은 처음이에요.”

도지원은 2남2녀 중 둘째다. 극 중 김현정처럼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 착한 딸이기도 하다.

“형제가 많지만 아마 동등한 사랑을 받고 자랐을 거예요. (웃음) 저는 오히려 장녀처럼 형제들을 챙겨줘요. 저희 엄마가 베풀듯 저도 물질적, 정신적으로 나눠주는 편이죠. 형제들끼리 불화도 없어요. 발레를 전공할 때도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 배우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새벽이라도 촬영 나갈 땐 아침밥을 꼭 해주세요. 스태프, 동료배우들 것까지 다 챙겨주시죠.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더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죠.”

젊은 후배보다는 스스로를 경계하는 냉철함을 지니고 있었다.

“저 스스로와의 싸움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와 경쟁하려고 하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도 있지만 항상 싸우려고만 하면 만족감이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와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맡은 인물, 해야 할 대사,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제가 이뤄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만 견제하면 인생이 즐겁지 않죠. 인성도 변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는 데뷔 25년 차지만 “어떤 배역이든 받아 들여서 연구할 것”이라며 더 발전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땐 ‘도지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연기를 잘 못하다 보니 제자리를 걷고 있더라고요. (웃음) 근데 촬영을

‘여인천하’ 작품서 생긴 선입견
모진 캐릭터와 실제성격 달라

‘착않녀’서 인간적인 모습 그려
가장 편하게 연기했던 드라마 ”

하다 캐릭터 그 자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배우의 감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연기관도 생겼죠.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변신하고 싶다고 원하는 배역만 맡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감독들은 도전보다 원래 지니고 있던 제 이미지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지금 제 위치는 주인공의 옆에서 그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수용하고 즐기면서 연기하려고 합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star bag

오는 8월 입대 확정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오는 8월 입대한다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입대 장소와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JYJ 멤버들 중 김재중에 이어 두 번째로 입대하게 됐다. 최근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에서 열연을 펼쳤던 박유천은 현재 영화 ‘루시드 드림’을 촬영하고 있다.

드라마 이어 영화까지

최근 SBS 드라마 ‘심야식당’으로 2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를 알린 배우 **김승우**가 영화 ‘잡아야 산다’ 출연을 확정지었다.

‘소녀괴담’ 오인천 감독이 연출하는 코믹 액션 영화로 김승우는 주인공 승주 역을 맡았다. 올해 연말 개봉을 목표로 6월 주요 배역 캐스팅을 마무리한 뒤 7월 크랭크인할 예정이다.

‘파수꾼’ 관객과의 대화 참여

배우 **이제훈**이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의 기획전 ‘인디’s 페이스’를 통해 오는 6일 상영되는 영화 ‘파수꾼’의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다.

2011년에 개봉한 영화로 이제훈에게 대종상영화제, 청룡영화상 등의 신인상을 안겨준 그의 대표작이다. 이번 행사에는 윤성현 감독도 함께한다.

2개월 만에 신보 발표

프로듀서 **프라이머리**가 오는 5일 새 싱글 ‘2-2’를 발표한다.

이번 싱글은 지난 4월에 발매한 싱글 ‘2-1’ 이후 2개월 만의 신보로 지난 싱글의 연장선에 있는 앨범이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오줌 쌀 권리를 위한 투쟁, 우리의 이야기다

피지배계층 아픔 풍자… 독특한 소재·엉뚱한 개그 코드

musical review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 유린타운

가난한 군중들이 오줌 쌀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뮤지컬 '유린타운'은 인간의 생리현상을 가로막는 권력에 대항하는 주민들을 통해 현실을 이야기한다. 관객은 우스꽝스러운 주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배우들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다.

'유린타운'은 우리말로 오줌 마을이다. 극의 연사 역할을 겸하고 있는 록스탁 순경(김대종)은 작품의 배경부터 주요 장면, 1막과 2막의 경계를 재치 있게 설명한다. 록스탁 순경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부가 공인한 개인 기업인 유린굿 컴퍼니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료 급수를 이용한다. 돈을 내지 않고 용변을 보는 사람들은 공권력의 제재를 받고, '유린타운'이라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끌려간다.

반란은 용변 권리를 장악하고 있는 클로드웰 사장(성기윤)이 공중 화장실 이용료를 인상한 데서 시작된다. 바비 스트롱(김승대·정욱진)은 시민의 대표자지만 클로드웰 사장의 딸 호프 클로드웰(아이비)의 연인이기도 하다.

'유린타운'은 미국 창작품이다.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와 브로드웨이에서 호평을 받으며 '맘마미아' '라이온킹' 등 걸출한 뮤지컬들과 경쟁했다. 2002년 토니상 연출상·극본상·작곡상 등 주요 3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독특한 소재는 한국 관객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다.

내용은 프랑스 혁명을 다룬 '레미제라블'과 애절한 사랑을 상징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코믹 버전이다. 자유롭게 오줌 쌀 권리를 주장하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결연하다. 호프 클로드웰과 바비 스트롱의 사랑은 관객을 미소 짓게 한다. '내가 네 엄마다' '사랑에 빠졌나 봐요' 등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상투적인 대사는 '유린타운' 특유의 엉뚱한 매력을 배가시킨다. 그러나 웃음을 위한 패러디, 소품을 활용한 개그 코드가 전개의 맥을 끊어 아쉬움이 남는다.

권력 남용과 피지배계층의 아픔을 화장실 사용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풍자한 뮤지컬 '유린타운'은 8월2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뮤지컬 '유린타운'. /신시컴퍼니 제공

영화 '김선달' 위해 모인 ★들

유승호·조재현·서예지 등 호화 캐스팅

시계 반대방향으로 유승호·조재현·서예지.

봉이 김선달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영화 '김선달'(감독 박대민)에 유승호·조재현·고창석·라미란·시우민·연우진·전석호·서예지 등이 캐스팅됐다.

'김선달'은 주인 없는 대동강 물도 팔아버린 구전설화 속 최고의 사기꾼 '봉이 김선달'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유승호는 조선 팔도를 신출귀몰 누비는 조선 최고의 사기꾼 김인홍 역을 맡았다. 천하태평한 성격과 자유분방한 리더십으로 작전을 이끌며 양반, 상인 할 것 없이 조선 팔도를 속여 넘기는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한다.

조재현은 돈 앞에서 나라도 왕도 몰라보는 욕망에 휩싸인 권력가 성대련 역에 캐스팅됐다. 고창석은 김인홍과 최고의 짝패를 이루는 보원 역으로 유승호와 찰떡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라미란이 점괘 전문 무당 윤보살 역으로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사기단의 막내이자 김인홍이 아끼는 동생 견이 역은 그룹 엑소 멤버 시우민이 맡는다.

연우진은 권력가 성대련의 음모로부터 백성과 나라를 지키려는 임금 효종을, 드라마 '미생'으로 이름을 알린 전석호는 김인홍을 추격하는 의금부 도사 이완을, 신예 서예지는 명문가 규수 규영 역으로 김인홍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영화는 '그림자 살인'의 박대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오는 6월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윤정희 품절녀 합류

6세 연상 회사원과 극비 결혼

배우 윤정희(35·**사진**)가 지난달 30일 결혼식을 올렸다.

1일 한 매체는 연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정희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발리서 웨딩마치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정희는 양가 친인척만 모인 가운데 조촐하게 식을 올렸으며 발리서 식을 올린 후 현지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다.

윤정희의 남편은 6세 연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가을 처음 만났으며, 약 8개월간 만남 끝에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울 잠원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숙희기자 sookinala@

김광보 연출, 서울시극단 단장에

김광보(51) 극단 청우 대표가 1일 서울시극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김 단장은 1994년부터 극단 청우 대표이자 연출가로 활동하면서 '뙤약볕' '그게 아닌데' '에쿠우스' '사회의 기둥들'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출상, 대한민국연극대상 연출상, 제49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 등을 수상했다. 또 2012년부터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회장을 맡아 국내 작가·연출가의 일본 데뷔를 돕고, 일본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등 양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김 단장은 2009~2011년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면서 단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립극단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배창호 감독, 지하철 추락 사고

투신 추정… 시나리오 작업 후 수면장애 겪어

배창호(62·**사진**) 감독이 철로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배창호 감독은 1일 오전 5시58분께 서울 대치동 한티역 분당선 왕십리 방면 승강장에서 추락했다

다행히 배창호 감독은 얼굴에 타박상 등을 입은 것 외에 큰 상처가 없었다.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한티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창호 감독이 스스로 투신한 건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 홀로 서 있다가 떨어지는 장면이 찍힌 만큼 스스로 투신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철로에 떨어진 뒤 전동차가 들어오자 선로 옆 안전지대로 몸을 피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배창호 감독의 가족은 "시나리오 작업을 끝내고 다음 준비를 하면서 수개월 동안 수면장애를 겪어왔지만 이 정도로 예민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줄은 몰랐다"며 "너무 충격적이고 정신과 치료 등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창호 감독은 1980년 '꼬방동네 사람들'로 데뷔했으며 '적도의 꽃' '고래사냥' '기쁜 우리 젊은 날' 등을 연출했다. /장병호기자

www.ilovenature.co.kr

뿌리면 끝!

천연 대나무 숯으로 풍성하게!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스프레이

왜 천연 대나무 숯인가?
일반 숯에 비해 10배 이상 고운
대나무 숯 미립자의 원적외선과 우수한
통기성이 두피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왜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스프레이인가?

일시 모발 도포제 조성물 국내 특허

- 자연스러운 뿌리는 가발로 탈모고민 해결!
- 방수코팅되어 물이나 땀에도 안심!
- 두피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대나무 숯 함유!
  (천연 숯 증모제 조성물 특허 제10-1183526호)
- 5~10초면 원하는 헤어스타일 완성!
- 약 200회 분사가 가능한 용량!
- 4가지 컬러로 다양한 헤어 컬러 연출!

남성용

여성용

자연스러운 흑색 | 진한 갈색 | 갈색 | 밝은 갈색

+ 자연체감 (사은품 증정) 멘솔 헤어클리닉 샴푸

*소비자가격 : 2만원

| 제품 구성 세븐에이트 흑채 60g 3개(동일 컬러) + 자연체감 멘솔 헤어클리닉 샴푸(300ml) **45,000원 | 제품 구입 및 상담 080-661-4949**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4-00565
상호명 : 동성제약(주) | 대표자 : 이양구

"서울서 단독공연, 꿈이 이뤄지는 느낌"

록 밴드 이매진 드래곤스, 8월 첫 내한 공연
"음악으로 연결된 특별한 경험 선물할 것"

미국 출신의 이매진 드래곤스(Imagine Dragons)는 지금 가장 성공한 록 밴드 중 하나다. 2012년 데뷔 앨범 '나이트 비전스(Night Visions)'의 두 번째 싱글 '라디오액티브(Radioactive)'가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록 퍼포먼스 부문을 수상하며 전 세계가 주목 하는 밴드로 급부상했다.

올해 초 발표한 두 번째 앨범 '스모크+미러스(Smoke+Mirrors)'는 발표와 동시에 빌보드 앨범 차트와 록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의 인연도 특별하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무대에 등장해 깜짝 라이브 공연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오는 8월에는 단독 공연으로 한국 팬과 정식으로 만난다.

첫 내한을 앞두고 이매진 드래곤스의 베이시스트 벤 맥키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맥키는 "아름다운 도시인 서울에 돌아가 단독 공연을 펼칠 기회를 얻은 건 마치 꿈이 이뤄지는 느낌"이라며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 한국 팬을 만나게 될 생각에 매우 들떠있다"고 공연을 앞둔 들뜬 마음을 전했다.

록 밴드 '이매진 드래곤스'. /라이브네이션코리아

데뷔 음반의 큰 성공으로 부담감도 느낄 법 하다. 하지만 맥키는 "우리는 진정으로 즐겁게 연주한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을 만한 음악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다.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음악으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일생 동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은 공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맥키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곳 사람들과 가능한 가깝게 연결되려고 한다. 특별한 것이 있지만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연장에 모인 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내한공연은 오는 8월 18일 오후 8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1차 티켓 예매는 매진을 기록했다. 2차 티켓 예매는 2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눈물바다가 된 교실

전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에 도전한다. '공부의 신' 엘리트 김범수는 일탈에 나서 모범생 이미지를 벗으려 한다.

공부가 어렵다고 울상짓던 산이는 여자 선생님의 수업시간이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눈웃음 발사에 발표도 자청하고 수업 중간 분위기를 띄우려 춤까지 춘다.

홍진경과 전효성, 윤소희는 글쓰기 수업 시간에 엄마에게 편지를 쓰다가 감정이 복받쳐 흐르는 눈물

을 주체하지 못하고 반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고 만다.

밴드부 공연 무대에 오른 김수로와 강남, 김성주는 무대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MBN '엄지의 제왕'

오후 11시

우리 몸속 세포를 다스리는 '핵산'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다. 건강을 위해 즐겨먹는 채식 위주의 식단은 자칫 잘못하면 '핵산'을 결핍시켜 노화를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핵산'이 풍부한 음식과 노화 방지를 위한 놀라운 비밀이 공개된다.

◆ SBS '썸남썸녀'

오후 11시 15분

강균성과 최희는 평소 강균성이 애인이 생긴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데이트로 꼽은 카누 데이트를 하며 영화 '노트북'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강균성은 데이트 내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정남으로 변신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 tvN '현장토크쇼 택시'

오후 8시 40분

프리랜서를 선언한 전 아나운서 오정연과 문지애가 '택시'에 올라 입담을 과시한다. 힘들게 붙은 아나운서 퇴사를 결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하기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솔직 담백하게 공개한다. 노래와 춤 그리고 개인기까지 아나운서 시절 숨겨놓았던 끼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52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42회)	15 불굴의 차여사 (103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20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17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5회)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12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후아유 – 학교 2015 (12회)	00 화정 (16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30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오만과 편견>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들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비정상회담 (48회) (재)		30 한식대첩 3 우승자 레시피 (2회) 5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5회)		00 루저스	◆ 프로야구 18:30 한화 vs 넥센 (SPOTV+) SK vs kt (MBC SPORTS+) 기아 vs 두산 (SKY SPORTS) 롯데 vs 삼성 (SBS SPORTS) LG vs NC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00 삼시세끼 정선편 (3회) (재)	30 두 남자의 캠핑쿡 (2회)	00 쇼킹 70억 (10회)	50 생텀	
20시	50 JTBC 뉴스룸	40 현장토크쇼 TAXI (382회)	00 오늘 뭐 먹지? (29·64회)	00 기생PARASITE 2부 끝없는 대결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30회)	40 집밥 백선생 (3회)	00 올리브쇼 2015 (19회)	00 <항공사고 수사대 : 에어 크래쉬> (19회)		
22시			00 오늘 뭐 먹지? (67·54회)	00 닐 타이슨의 스타 토크 (4회)	00 할리우드폭로전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5회	00 식샤를 합시다 2 (18회)	05 올리브쇼 2015 (19회)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2> 유럽의 만리장성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29회)	20 현장토크쇼 TAXI (382회) (재)	00 메이의 파티쿠킹 (2회) 10 2015 테이스티로드 (14회)	00 <극한직업> 스리랑카 보석 광산	00 폴리스 스토리 2014	

이승엽 '400호 홈런' 롯데전서 이룬다

포항구장 유난히 강해
홈런볼 가치 '최소 1억'

400호 홈런을 목전에 둔 이승엽(39·삼성 라이온즈)이 포항구장으로 떠나 기록 달성 재도전에 나선다.

이승엽은 지난달 30일 잠실 LG전에서 개인 통산 399호 홈런을 기록했다. 다음 날에는 8회 오른쪽 외야석에 떨어지는 큰 타구를 쳤지만 파울 폴을 살짝 빗나가 아쉬움을 남겼다. 기록 달성을 놓친 이승엽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3연전에서 대기록 달성을 기약하게 됐다.

이승엽과 포항구장은 유난히 인연이 깊다. 2012년 개장한 '삼성 제2구장' 포항구장에서 20경기 타율 0.389(72타수 28안타)를 기록 중이다. 28안타 중 9개가 홈런이었다. 지난해 치른 9경기에서는 무려 홈런 7개를 기록했다. 장타율도 0.833이나 된다. 올해 시범경기에서도 2개의 홈런을 쳤다. 본인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포항구장의)타석에 서면 기분이 좋다"며 "컨디션이 안 좋으면 포항으로 와서 특타 훈련을 해야겠다"고 농담을 했다.

상대가 롯데라는 점도 400홈런 달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승엽은 홈런 399개 중 67개를 롯데전에서 기록했다. 가장 많은 홈런을 쳐낸 구단이다. 2003년 10월에는 롯데와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아시아 최다인 56호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은 내심 이승엽이 '홈구장'인 대구에서 400홈런을 달성하길 바랐지만, 400만원 상당의 폭죽을 포항으로 옮겨 포항에서 홈런이 터지더라도 홈구장과 같은 수준의 세리머니를 펼칠 수 있도록 배려했다.

400호 홈런공 가치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한 외국 경매 사이트 관계자는 "400호 홈런공 경매 시작가는 1억원을 넘길 것이다. 그 이상은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승엽이 은퇴하면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한국프로야구 홈런공 최고가는 1억2000만원이다. 이승엽이 2003년 6월 22일 대구 SK 와이번스전에서 기록한 아시아 최연소 300호 홈런공으로, 구관영 에이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매했다. 구 회장은 2013년 구단에 이 홈런공을 기증했다. 이승엽의 56호 홈런공은 구단 협력업체 직원이 잡아 기증했다. 삼성은 감사의 표시로 금 56냥을 선물했다.

KBO는 지난달 31일 LG전에서부터 이승엽 타석이 되면 심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표시를 해둔 공을 사용하고 있다. 누군가가 가짜 공을 이승엽의 홈런공이라고 주장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3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5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4회초 무사 1루 삼성 이승엽이 안타를 친 뒤 1루에서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염기훈, 최보경, 임채민. /연합뉴스

염기훈·최보경·임채민 '슈틸리케호' 첫 승선

기성용·구자철·박주호·김보경 등 해외파 제외

울리 슈틸리케(사진 아래) 감독이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는 11일 아랍에미리트 평가전과 16일 미얀마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에 나설 23인과 6인의 예비명단을 발표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무려 11명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피로도가 쌓인 해외파에는 휴식을,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새 얼굴에게는 기회를 선사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인 기성용(스완지 시티)을 비롯해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입소한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 김보경(위건),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은선(수원)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윤석영(QPR) 김주영(상하이)은 부상을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다.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한교원(전북)도 제외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3명의 새 얼굴을 합류시켰다. 공격포인트 1위의 염기훈(수원)과 최보경(전북), 임채민(성남)이 그 주인공이다. 염기훈은 11경기 동안 6골을 넣으며 득점 순위는 2위, 어시스트는 6개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서른이 넘은 나이에도 전성기나 다름 없는 만점 활약으로 슈틸리케의 첫 부름을 받게 됐다.

최보경도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 받아 첫 발탁의 영광을 얻었다. 올 시즌 신형민과 김남일이 빠지면서 빈 자리가 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9월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던 중앙 수비수 임채민도 슈틸리케의 부름을 받았다. 리그 전 경기에 출장하며 팀을 리그 5위로 끌어 올렸고 AFC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도왔다. 김주영과 김영권이 빠진 자리에 시험 무대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K리그에서 활약이 돋보이는 강수일(제주)과 이주용(전북)과 일본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는 이용재(V-바렌 나가사키)와 정우영(빗셀 고베)도 지난 아시안컵 대비 제주 소집훈련 이후 슈틸리케호에 다시 올랐다. /하희철기자

추신수 1안타… 강정호 '침묵' 타율 2할대로

메이저리거 추신수(사진)가 5월 마지막 경기에서 안타 1개를 추가했다.

추신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때리고 볼넷 1개를 골랐다. 시즌 타율은 0.236(174타수 41안타)으로 약간 올랐다.

제프 배니스터 감독의 배려로 하루 쉰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타점 기회를 잡았다. 0-1이던 1회 무사 2루에 나온 추신수는 보스턴 우완 선발 투수 조 켈리와 풀 카운트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몸쪽에 떨어지는 낙차 큰 커브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1-2로 뒤진 3회 1사 후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 1루를 밟았다. 상대 실책으로 2루에 간 추신수는 1사 1, 2루에서 터진 애드리안 벨트레의 중전 적시타 때 득점에 성공했다.

텍사스는 9회 대타 조시 해밀턴의 극적인 끝내기 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4-3으로 승리해 보스턴과의 홈 4연전을 3승 1패로 마쳤다.

강정호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원정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02에서 0.291(110타수 32안타)로 떨어졌다. 팀은 1-7로 패했다. /하희철기자

박인비 랭킹 1위 탈환 실패
숍라이트 클래식서 5위로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숍라이트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공동 5위를 차지하면서 17주 만의 세계랭킹 1위 탈환을 놓쳤다.

박인비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스톡턴 시뷰호텔 골프클럽 베이코스(파71·617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4언더파 209타의 성적을 낸 박인비는 이미림(25·NH투자증권), 카리 웹(호주) 등과 함께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박인비가 이번 대회에서 공동 3위 이상 성적을 내면 1위를 재탈환 할 수 있었으나 간격을 좁힌 것에 만족하게 됐다. /하희철기자

Political and economical officials exempted from military obligations

<정재계 군미필자 '전성시대'>

It has been found that most of the third generations of Samsung and Hyundai evaded military obligations.

Prime minister nominee Hwang Kyo-An is included on this list.

According to the Military manpower office, vice president of Samsung, Lee Jae Yong (P) got Grade 1 on Physical condition check up.

But on November next year, he got grade 5 due to back disc and eventually was exempted from the military obligation.

Vice President of Hyun Dae Motors, Chung Eui Sun was included in this list due to cholecystectomy in 1989. Also, Prime Minister nominee, Hwang Kyo An, was on this list due to urticarial symptom.

삼성, 현대차 등 재벌 3세 경영승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도 포함돼 있다.

31일 병무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990년 6월 징병검사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해 11월엔 허리디스크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 1989년 담낭절제 수술 전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만성 담마진'이라는 피부병으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2		5		1	
		6				4		
	1						9	
4			7		8			5
	2		1	9	4		6	
	5						8	
3				1				2
	4	1				7	3	

4								1
		9	1		2	4		
	6		4		7		9	
	9	2	7		4	8	3	
				2				
	3	4	6		5	1	2	
	4		9		8		1	
		5	2		1	3		
1								9

스도쿠 정답

1	8	5	4	6	3	2	7	9
7	9	4	2	8	5	6	1	3
2	3	6	9	7	1	4	5	8
8	1	7	5	2	6	3	9	4
4	6	9	7	3	8	1	2	5
5	2	3	1	9	4	8	6	7
6	5	2	3	4	7	9	8	1
3	7	8	6	1	9	5	4	2
9	4	1	8	5	2	7	3	6

4	2	8	3	5	9	6	7	1
7	5	9	1	6	2	4	8	3
3	6	1	4	8	7	5	9	2
5	9	2	7	1	4	8	3	6
6	1	7	8	2	3	9	5	4
8	3	4	6	9	5	1	2	7
2	4	6	9	3	8	7	1	5
9	7	5	2	4	1	3	6	8
1	8	3	5	7	6	2	4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공단 물리치료사 준비 중인데 잘 될까요
중도포기는 안 한만 못해… 신념 갖고 노력

하늘을 나는 아이 87년 2월 27일 양력 9시30분

Q 저는 87년생 양력 2월 27일생으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 한 후, 2년 동안 공공기관(공단) 입사를 준비 중입니다. 1년은 일하면서 준비 하였고 올해는 쉬면서 준비 중 입니다. 준비하면서 계속 서류에서 떨어져서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좌절감과 함께 자존감도 이제 사라져 갑니다. 올해까지만 올인 하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상담 신청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A 사주를 볼 때 남녀의 구분과 태어난 시간과 장소가 사주팔자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남녀의 구분에 따라 대운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때를 추명 하는데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태어난 장소와 시간에 따라 시주(時柱) 즉 태어난 시간으로 말년이나 자식 궁의 운세가 계절적으로 달라집니다. 생일지(生日支)에 식신(食神: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먹고사는 터전 직업을 나타냄)과 편재(偏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인데 비 정기적인 수입을 나타냄)가 내재되어 삶이 무난하게 전개되지만 일의 계획성과 추진력은 순간순간 다운 될 때가 강합니다. 이는 재성(財星:재물을 나타냄)의 부재로 인해 그러할 수 있으니 일의 성과나 재정적인 성취를 보려면 끈기 있게 파고 들어야합니다. 시절이 어려운 때라 대운이나 세운에서 기대해 봐야 하는데 그것조차 올 해 안되면 내년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지하면 애당초 안 ㄴ한만 못하여 어렵게 지내는 것 입니다. 사주 상으로는 취업 여부를 결정 하는 오행은 귀하의 경우 금기(金氣)를 말하는데 사주 원국에서 약하니 취업과 인연이 멀게 되며 대운이나 세운에서도 좋은 운이 들어와야 하는데 당분간은 뜻대로 되기가 어려운 것은 형살(刑殺)이라는 운이 들어 있고 운이 묶여 있는 형상이지만 노력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신념을 갖고 신념을 이루십시오. 2018년이 지나야 운세가 원만하게 되겠으나 올해 올인 하기로 한 것은 다음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으니 그 시기 전에 진정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2019년 지나서는 편 재운(偏財運:재물이 크거나 사업 운을 말함)이 승발하는 사주구조이므로 장래를 위한일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2일 (음 4월 16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순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60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됩니다. **72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빈곤하구나. **84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49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될것입니다. **61년생** 운대가 좋지 못하구나. **73년생**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85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50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62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4년생** 거래가 성사되거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86년생** 문서에 인연이 있으니 희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51년생 좋을 때도 있고 나쁠때도 있는 법입니다. **63년생** 할 일이 아직도 많으니 피곤합니다. **75년생**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셔야 합니다. **87년생** 친구나 지인들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52년생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64년생** 싸우기 보다는 양보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76년생** 마음이 지치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88년생**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53년생 다치거나 분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5년생** 여행이나 외출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77년생**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필요합니다. **89년생** 점점 운기가 좋아지니 계속 노력하세요.

54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66년생** 경거망동 하지마세요. **78년생** 북쪽방향이 길합니다. **90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합니다.

5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잘 풀립니다. **67년생**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는게 좋습니다. **79년생** 갈등이 있던 사람과 화해하게 됩니다. **91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더 큰 것을 얻습니다.

56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8년생** 고생 끝에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잇습니다. **80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9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하는게 필요합니다.

57년생 유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직장운이 풀려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81년생** 동료나 친구와 협력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93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58년생 주위와 잘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70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82년생**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길한 하루입니다. **94년생** 친구와 연락하고 만나면 즐겁습니다.

59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년생** 회식이나 모임에 가면 행운이 있습니다. **8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지나친 음주나 과식은 금물입니다.

네이버-다음 인터넷기자협회 성명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는 포털 뉴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를 위한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제휴 정책을 제안했다. 객관적으로 진행만 된다면 훌륭한 제안이다. 한국 언론 시장은 포털 제휴 여부에 따라 소속 언론사의 존폐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뉴스콘텐츠 유통이 포털에 종속된 구조다. 때문에 관련업계의 우려와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언론학회, 언론재단에 계획을 브리핑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포털사 뉴스제휴 담당자들이 질의응답시간에 시민단체 참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들이 사전에 논의한 단체가 기자들의 순수 협의체인지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일반인이야 인터넷과 온라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기자들이 속한 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상당수 기자와 PD등이 속한 한국기자협회와 (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기자와 PD등 회원사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곳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사와 사주'들의 단체라는 것이다. 소위 일부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참여자로 명시돼 있고, 대부분 기자들이 속한 단체는 배제됐다는 이유로 언론계가 시끄럽다.

한국의 언론시장에서 광고주의 입김은 언론사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하다. 광고주를 비판하거나 광고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광고가 끊기고 신문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소위 권력자인 메이저 언론이 비판하면 지적이지만 규모가 작은 신문사가 비판하면 나쁜언론이된다. 본질은 독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광고 가로막기' 압력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언론사는 없다. 일부 신문사들의 부도위기 사태 또한 독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경영을 총괄하는 언론사주들은 광고주들의 입김에 반항하고 논조를 유지해 나가기가 힘든 것이 언론시장 상황이다. 기자야 관두고 다른일이라도 찾으면 되지만 언론사주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번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는 언론사주와 광고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상당수 국민들도 이를 우려할 것이다. 자칫 권력의 논조와 어긋나거나 광고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기사가 나갈 수 있는 유통채널이 원천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소위 '사이버언론'의 실상에 대해 소상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사이비언론의 협박에 못 이겨 광고비나 협찬비용을 뜯기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수십명 법무팀을 거느린 대기업들이 정말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광고주들은 즉각 공갈협박죄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해당 언론사를 형사 고소하면 될 일이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있다. 팩트를 가지고 사이비 언론을 운운한다면 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무작정 주장하고 여론몰이하면서 고사시키려는 것이다.

소위 메이저 언론사들이 만든 종편이 높은 광고단가를 요구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중소언론이 정당한 협찬을 요구해도 사이비로 만들기 일쑤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의 권력과 대항해 이길 수 있느냐는 단순명료한 것이다.

정당한 기업 경영 비판 등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위축하게 할 목적으로 할당된 광고를 취소하거나 억대의 소송 등으로 언론 활동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산업부장

화장품, 제대로 성장하고 있나

기자 수첩

김 수 정
<생활유통부 기자>

"지금 성장세인 업종은 화장품밖에 없어요"

유통 업계 홍보 담당자들이 입이 마르도록 하는 말이다. 일명 '요우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국내 화장품 산업은 날개를 달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16조 2900억원으로 12조원대였던 2010년보다 4조원 가량 늘었다. 올 1분기 성적만 봐도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계열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7.7%, 50.2% 늘며 불황 속에서도 선전했다.

화장품주도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황금주'로 주목받자 엔터테인먼트·패션 업체 등도 화장품 브랜드 만들기에 돌입했다. 문제는 이들이 대체로 화장품 사업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체 생산이 아닌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화장품산업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탓에 너도나도 군침을 흘리고 있지만 만만히 볼 사업은 아니다. 기술력 없이는 경쟁에서 도태되기 십상이다. 1년에 많은 신제품들이 쏟아지지만 한 브랜드 당 주목받는 제품은 겨우 1~2개다. 자체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없다면 히트 상품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한때 '황금알' 소리를 듣던 화장품 브랜드숍도 기존 업체에 중견 화장품 업체까지 진출하면서 포화 상태에 달했다. 급성장한 탓에 견실하게 크고 있는 업체가 몇 안된다. 할인으로 승부수를 낸 탓에 일부 업체들은 수익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히트 상품 하나로 버티고 있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화장품 성장세만 보고 시장에 뛰어든다면 시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만 늘게 된다. 기술력 개발 등을 통해 여러 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그네틱카드로 ATM 거래 불가"

소비자 119

앞으로 IC칩이 없는 마그네틱(MS) 신용카드로는 현금인출과 대출 등 자동화기기(ATM) 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모든 ATM에서 마그네틱선만 있는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이용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등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카드 앞면에 IC칩(금색 또는 은색 사각형 모양의 칩)이 없이 뒷면에 마그네틱 선(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신용카드사는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사용 범위를 점차 제한해왔다.

다만 IC카드로 미처 전환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자동화기기 코너별로 1대의 ATM은 MS신용카드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일부터는 MS신용카드로 카드대출과 현금인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물론 ATM 거래 제한을 해도 MS신용카드로 물품 결제는 계속할 수 있다. 또 ARS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카드대출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중 ATM에서의 IC신용카드 거래비중이 99.8%에 달하고 특별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 등 ATM에서의 IC거래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 ATM에서 보안성이 높은 IC거래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면제한 이후 MS신용카드 소지 고객은 ATM을 제외한 ARS,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카드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며 "IC신용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신용카드 소지 고객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여 조속히 전환발급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MS신용카드 이용 고객은 카드 뒷면에 기재된 카드사 고객센터로 IC신용카드로 무료 전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인사

■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오영 ▷인권정책과 김재석 윤채완 ▷조사총괄과 최낙영
■ 국민안전처
△실장급 전보 ▷안전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종제 △시도본부장 승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정감 강태석 △과장급 전보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장 서기관 이형석 ▷재난관리실 재난자원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신상용
■ 기획재정부
△실장급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파견 김용진 △국장급 ▷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임기근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파견 홍두선 △과장급 ▷총사업비관리과장 강길성 ▷민간투자정책과장 이상영 ▷국제경제과장 이상목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보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보존과학부장 이용희
■ 특허청
△과장급 전보 ▷청장비서관 정경훈 ▷전자부품심사팀장 마정윤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국섭 ▷〃 최대순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보 ▷정책협력부장 조성재 △승진 ▷바이오임상표준센터장 강덕진
■ 혼다코리아
△전무 승진 ▷박종석 ▷서정민
■ 동덕여대
▷교무처장 황용일
■ 조선대학교
▷기획조정부실장 겸 대학특성화지원센터 부센터장 이민창
■ 창원대
▷도서관장 권요한 ▷정보전산원장 장정욱 ▷학생생활관장 구광수 ▷보육교사교육원장 정대영 ▷공동실험실습관장 주우홍 ▷종합인력개발원장 전외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 보임 ▷사업총괄본부장 한호현 △단장 보임 ▷전략기획단장 민병수 ▷SW진흥단장 이혁재 ▷클라우드사업단장 조유진 ▷디지털콘텐츠사업단장 김효근 ▷IoT·융합사업단장 전준수 ▷글로벌사업단장 김득중 ▷전자문서사업단 강현구 ▷경영지원단장 박시춘
■ 국민일보
▷편집국 그래픽뉴스 팀장 안지나 ▷〃 어문팀장 서완식▷판매국 판매지원팀장 강의형▷경영전략실 총괄데스크 권혜숙 ▷〃경영지원팀장 이신학▷〃 재무팀장 박정환 ▷선교홍보국 선교홍보팀장 박상원

부고

▲박필주 씨 별세, 이영걸(새누리당 울산남갑 당협 조직부장)씨 모친상=31일, 웅상중앙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3일 오전 11시30분, 055-912-4440
▲이복순 씨 별세, 송근호(자영업)·필호(한국신문협회 회장·중앙일보 부회장)씨 모친상, 임정수·조선희씨 시모상, 송승홍·창환·승은·윤진·영석씨 조모상=1일 오전 9시4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2-3410-6919
▲윤남선 씨 별세, 조덕진(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씨 모친상, 손봉채(작가)씨 빙모상=1일, 금호장례식장, 발인 3일, 062-227-4000
▲김관덕 씨 별세, 성우(롯데카드 CRM 부문장)·이선·지선씨 부친상=3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45분, 02-2258-5940